

인문한국(HK)지원사업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제6회 학문후속세대 학술심포지엄

“분단문화의 극복과 남북 소통”

■ 일시: 2017년 08월 22일(화) 오후 3시~5시40분

■ 장소: 건국대학교 인문학관 교수연구동 401호

■ 주최: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통일인문학연구단

■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KONKUK UNIV.

이 자료집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NRF-2009-361-A00008)

인문한국(HK)지원사업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제6회 학문후속세대 학술심포지엄

“분단문화의 극복과 남북 소통”

사회: 신호명(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개회사> 3:00~3:10

김성민(통일인문학연구단장)

좌장: 박민철(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제1발표> 3:10~4:00

「1990년대 한국영화로 본 분단 트라우마」

발표: 강송희(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토론: 남경우(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2발표> 4:00~4:50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시대 귀속 문제」

발표: 곽아람(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토론: 김정아(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3발표> 4:50~5:40

「상호접촉에 의한 남한 근로자의 시선 변화: 개성공단 사례」

발표: 임지훈(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토론: 박솔지(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차 례

<제1발표>

강송희, 「1990년대 한국영화로 본 분단 트라우마」 _____	1
남경우, 〈토론문〉 _____	24

<제2발표>

곽아람,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시대 귀속 문제」 _____	25
김정아, 〈토론문〉 _____	44

<제3발표>

임지훈, 「상호접촉에 의한 남한 근로자의 시선 변화: 개성공단 사례」 ____	47
박솔지, 〈토론문〉 _____	66

1990년대 한국영화로 본 분단 트라우마

강송희(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목차 -

1. 서론
2. 90년대 이전 분단영화의 흐름
 - 1) 90년대 이전의 분단영화 정리
 - 2) 반공영화에 나타난 반공주의
3. 90년대의 분단영화 분석 : 탈 냉전체제 이행기
 - 1) 분석틀
 - 2) <남부군> : 역사의 재인식
 - 3) <태백산맥> : 휴머니즘
 - 4) <쉬리> : 분단현실의 인식
4. 결론 : 90년대의 분단영화를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

1. 서론

한반도는 20세기 전반기에 망국과 피식민의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 해방 이후에는 통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열망이 좌절되었으며, 곧이어 분단과 전쟁을 치렀다. 분단국가로 나뉜 이후에도 독재와 국가폭력, 급격한 산업화 등은 한반도 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이렇듯 한반도는 식민-이산-분단-전쟁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내재화되어 재생산되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 트라우마들은 구조적으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치유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현재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발현된 트라우마적 증상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의 경우, 그들의 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다. 하지만 분단이 지속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개개인이 겪는 트라우마 증상은 보다 내면화되고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적 트라우마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확대되면서 그 대상과 증상을 특정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트라우마의 치유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바뀔때 따라 트라우마가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승되고 발현되고 있는지를 통시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분단 트라우마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분석대상이다. 분단트라우마는 8.15 이후 하나의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로 귀결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로부터 발생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 트라우마는 민족국가를 향한 열망의 좌절이 민족 내부의 적대와 증오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이 겪은 식민지 기억의 상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역사적 트라우마의 그 하위 개념으로서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유형 제시와 치유 방안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역사적 트라우마는 자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 트라우마의 증상은 과거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나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서 나타나며, 한 사회의 이해 불가능한 병리적 현상으로 극단화되어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하나로써 분단 트라우마는 ‘민족=국가’의 욕망 좌절이라는 한반도의 독특한 경험에서 발생한 집단적 적대성의 성격을 지니며, 그 치유방안은 남북이 분단 이전의 획일적, 동질적 서사가 아니라 민족공통성을 생산하는 통합서사에 있다.¹⁾ 셋째, 분단 트라우마는 민족적 리비도의 흐름이 중단되고 억압되면서 ‘원죄의식’을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 속에 있다. 따라서 분단 트라우마 치유는 민족적 리비도가 민족의 활력이 되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²⁾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분단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국사회에서 그간 개봉했던 ‘분단영화’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그 당시에 북의 형상화 방식과 그 길항관계가 보이는 영화 내 내용들을 분석하고, 어떤 지점에서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화는 대표적인 시각적 대중매체로 그 사회가 공유하는 집단 기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즉 영화에는 그 사회만이 갖는 독자적인 장르 혹은 스타일을 가장 대중적 인식과 결부시켜 드러내기 때문이다.³⁾ 게다가 영화는 상상력이 자본, 기술, 대중을 만나 길항하거나 심지어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포섭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영화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표상을 통해 자본의 욕망, 대중의 기대, 그리고 국가 권력의 숨겨진 의도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

이하의 글에서는 다만, 분단영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990년대의 분단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1990년대는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탈 이데올로기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던 시기이자, 영화사적으로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영화에서 북을 그리는 모습에 있어서 반공주의를 벗어나 좀 더 자율성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90년대 이전의 영화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단영화들이 제작되는 기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반공영화가 제작되었고,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심

1) 박영균·김종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방법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지음,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선인, 2012. ‘역사적 트라우마’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이 책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 책을 참조하시오.

2) 김성민·박영균,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시론적 성찰」, 『시대와 철학』, 2011, p.161. ‘분단 트라우마’ 개념과 그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 논문을 참조하시오.

3) 김의수,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p.14.

4) 원원, 『한국영화와 민족주의』, 박문사, 2016, p.156. 국가 권력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있다는 것은 탈북자의 교육에서 처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영화 매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화는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시청자에게 인식을 재창조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이다.

했다.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화는 국가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심기 위한 도구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다. 2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분단 영화’를 ‘반공 영화’와 분리해서 분리하여 정의한다. 필자가 ‘분단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는 90년대부터 등장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부의 검열 하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분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공 영화’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자율성을 가지고 복을 그리기 시작한 90년대의 영화부터 분단영화로 보고, 반공영화와 분단영화의 기점이 된 90년대의 사회적 반응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한국 사회 내의 분단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양상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2. 90년대 이전 분단영화의 흐름

1) 90년대 이전의 분단영화 정리

‘분단영화’라는 개념이 영화학에서 처음 정식화된 것은 한국영화사학자인 이영일에 의해서이다. 이영일은 반공영화, 군사물, 이데올로기 영화, 이산가족 영화 등 분단시대를 배경으로 파생된 작품경향을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분단영화’로 규정하였다.⁵⁾ 그런데 정영권은 분단영화 정의의 혼란을 지적하면서, ‘분단영화’를 전쟁영화와 반공영화라는 틀 속에서 규정되었던 하나의 장르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⁶⁾ 이후 김충국은 분단영화는 반공영화와 종종 그 의미가 혼재되어 쓰였는데, 오늘날에는 분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삼아 다루는 영화에서 기존의 반공주의를 유희하는 경향이 주류화되고 있기에 두 개념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⁷⁾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단영화의 개념을 반공영화와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80년대까지의 강한 검열과 국가차원의 반공영화제작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반공영화 자체가 분단의 한 측면을 증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반공영화 역시 크게 분단영화의 하위 개념으로 볼 것이다.⁸⁾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가 급선무였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계몽영화, 반공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산영화보호육성책 등을 실시하였다.⁹⁾ 실제로 국방부 정훈국 영화과에서 내놓은 한국전쟁 기록영화 <정의의 진격 1부>(1951)를 시작으로 1950년대 전반기까지 한국영화의 주류는 군이나 관이 제작한 한국전쟁영화가 차지하였다.¹⁰⁾

그러나 반공영화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국가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 반공영화는 적대적 타자로서 ‘공산주의(자)’를 등장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사실성을 가할수록 관객과 극중 인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반공영화의 역사에서 이러한 균열은 간헐적으로 드러났다. 그 첫 사례는 <피아골>(이강천, 1955)이다. <피아골>은 한국전쟁을 빨치산의 시각에서 다룬 거의 최초의 극영

5) 이영일, 「영화 : 분단비극 40년 영상 증언한 한국 영화」, 『북한』, 1984, p.106.

6) 정영권,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연구 : 1949-1968 전쟁영화와의 접합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50.

7) 김충국, 「분단과 영화」, 『한국민족문화』 53, 2014, p. 284.

8) 강성률, 『영화는 역사다』, 살림터, 2010, p.76.

9) 원원, 위의 글, p.162.

10) 이순진, 「민주화운동과 문화,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 1950년대 문화 영화에서 구축된 ‘이승만 서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 23집, 2010, p.84.

화이다. 휴전이 되었지만 빨치산이 지리산에 잔재해 있던 시기에 만들어져, 이후 반공영화에 나타난 인민군의 형상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¹¹⁾ 이 영화는 제작과정에서 기관의 감수와 검열을 거치고도 개봉 후에 용공영화 논쟁에 휘말렸고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의견충돌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¹²⁾ 그럼에도 <피아골>은 빨치산을 지나치게 잔혹하고 동물적인 광기의 집단으로 그리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¹³⁾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있어서도 반공영화 제작은 이어졌다. 한국전쟁의 참전용사였던 영화감독 이만희는 군사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반공영화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1965년 작 <7인의 여포로>¹⁴⁾에서 북한군을 동일한 민족의 범주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영화는 상영 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공산주의 비판을 위해 공산주의자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순간 그 목적이 모호해지고 파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반공영화는 필연적으로 선명하고 평면적인 선악 대립 구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모호함이 배제되어야 하지만 인물들의 생각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갈등은 반드시 피상적이어서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패한 영화’의 속성과 동일하므로 반공영화는 근본적으로 관객의 호응을 받기 힘든 조건을 안고 있었다.¹⁵⁾ 결국 정부가 대예산 반공영화를 직접 제작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단명하였고, 지원책이 끝나자마자 대중상 반공영화부문이 폐지되었다.

1970년대는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불황에 접어든 시기였다. 1973년에는 영화법 개정예 따라 반공영화는 국가가 설립한 ‘영화진흥공사’에서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여 제작되었다. 예컨대, 임권택의 <중언>(1973), 이만희의 <들국화는 피었는데>(1974) 등이 ‘국책반공영화’로써 제작되었다. 물론 당시 한국영화의 제작 환경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대작으로 반공영화에 대한 관객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지만, 잠시였을 뿐 종래에는 중고등학생의 단체 관람 등으로 명맥을 잇다가 외면당하게 되었다.¹⁶⁾ 게다가 반공영화 외에는 정부에서 문예영화정책을 폐지하게 되자 영화 산업은 불황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1976년부터 민간 제작 반공영화에 대한 보상정책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영화사에게 의무적으로 대작 반공영화 1편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 중 10편을 선정하여 외화 수입권 1편을 보상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보상 정책은 이후 여러 변화를 겪다가 최종적으로는 대중상 우수반공영화상 수상작 제작자에게 외화수입권을 배정하는 제도만 남게 되었다.¹⁷⁾

이 시기 이후 분단영화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영화는 일종의 ‘작가영화’로서 제작되었다. 유현목은 1960년대 초에 발표된 유현목의 <오발탄>(1960)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작가주의적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배창호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를 찍었고, 임권택은 <짜코>(1980)과 <길소뜸>(1985)을 제작했다.¹⁸⁾ <오발탄>(1960)은 이범선의 원작을 영화화한 것이다. 반공영화들 틈에서 분단이 정신적, 경제적

11) 강성률, 위의 글, p. 80.

12) 김충국, 위의 글, p.285.

13) 강성률, 위의 글, p. 81.

14) <7인의 오포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여성이 중공군에 의해 겁탈당할 뻔한 것을 북한군 장교가 구출하며 공산주의 사상에 염증을 느낀 공산군들이 전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 김충국, 위의 글, p.285.

16) 김충국, 위의 글, p.286.

17) 김충국, 위의 글, p.286.

18) 원원, 위의 글, p.165-6.

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황폐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는 전쟁고아의 아픔과 물질 만능주의, 신분 차이로 인한 두 자매의 심적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임권택의 <길소뜸>(1985)는 분단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이산가족 문제를 감정을 배제한 채 들여다본 작품으로, 한국 리얼리즘의 정수로 평가받았다.¹⁹⁾

하지만 이러한 몇몇 영화를 제외하고는 주로 분단은 반공영화에서 그려졌다.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북한의 모습은 늘 절대적인 악인으로 그려지곤 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냉전시대의 산물로 그저 동족상잔의 비극일 뿐이었다는 사실은 외면되었다. 게다가 전쟁 중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의 만행만을 그리고 국군과 연합군의 행각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2) 반공영화에 나타난 반공주의

반공영화에 나타나는 반공 이데올로기는 대표적인 분단 트라우마의 산물이다. 전후 한국 사회는 전쟁을 치른 공산주의 국가인 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잔재해 있었다. 그러한 인접한 적의 존재는 전후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힘을 키우고 독재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고 아울러 한국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체의 사회적 가치들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작동해왔다. 더 나아가 반공담론은 북의 침략에 대한 물리적 공포의 환기뿐만 아니라, 반공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혹은 정반대의 경우에 초래될 손해를 강조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와 강하게 결합하게 되었다. 이렇듯 과거의 반공 담론은 대체적으로 개발독재 및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골적인 반공주의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나 국가 발전의 명분으로 민주주의 제약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²⁰⁾

반공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아니다. 반공과 용공의 이분법은 한국사회를 갈등으로도 내몰지도, 통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다른 모든 사회적 이슈를 무화시키는 격렬한 정서적 반공주의는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는 정치, 군사, 안보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일상적 사고의 영역에 깊게 스며들어있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끊임없이 공론화하는 의미에서의 반공주의는 ‘북한’ 문제에 관련된 ‘위기’ 시에만 전면으로 부상할 뿐 평상시에는 지배적 담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후 수십 년 간의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반공주의는 그것의 본질적 속성을 사회 전반에 확장시켰다. 반공주의적 세계관의 일상적 내면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정신 속에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자발적,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일종의 회로판을 형성한다.

반공주의는 모든 비판적 생각이나 운동을 ‘좌익’, ‘불순’, ‘용공’의 영역과 즉각 결합시킨다. 그것은 지배구조에 대한 모든 형태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상적으로 확실, ‘건전’해야 하며 ‘불투명’하거나 ‘불순’

19) 강성률, 위의 글, p. 86.

20)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출판사, 2000, p.153.

한 요소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리속 깊숙이 각인시킨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최고의 천형은 ‘빨갱이, 친북으로 찍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비판적 생각의 제기는 이미 출발부터 좌익혐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다. 결국 오랜 시간동안의 사유를 통해 반공주의는 사람들의 사유체계에 들어선 자기 검열성과 감시성의 일상화가 되었다.

반공주의는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동원, 접합되어 왔다.²¹⁾ 그리고 사회의 신체에 체화되어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내면화되었다. 반공영화는 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반공영화가 체화시키는 데 기여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것이다.

3. 90년대의 분단영화 분석 : 탈 냉전체제 이행기

1) 분석틀: 분단 트라우마

이 장에서 1990년대의 분단영화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분단 트라우마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과 분석의 기준을 정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언급되는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를 의미하는 정신의학적 용어를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시킨 것이다.²²⁾ 이것은 분단에 의한 상처를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학용어를 차용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일제시기의 ‘민족≠국가’로 인한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이 가져온 식민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결국 분단되면서 ‘민족≠국가’의 재경험으로 인해 식민 트라우마는 현재화되었다. 재차 민족적 리비도가 좌절된 경험은 민족 간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화되었다. 게다가 미소의 냉전체제가 한반도 남북의 이념대립으로 전치되면서 점차 민족정체성은 분열되었고, 이는 분단 트라우마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한반도는 역사적 국가로서 ‘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 열망은 한 쪽에 대한 흡수라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6.25는 ‘골육상잔’의 비극으로,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 깊은 ‘죄책감’을 남겨 놓았다. 그렇기에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트라우마이면서 가해자의 트라우마라는 특이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이성은 전후 한반도에서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을 온전히 피해자의 논리로 전화시키고 “국가가 요구하는 양심의 가책과 윤리의 내면화를 통해서 민족을 국민으로 전화시키는 억압적 코드로 변환”시키는 차원에서 분단의 트라우마를 사유하게 된다.

결국 분단 트라우마는 전쟁을 계기로 남북 분단이 결손국가로 고착되면서 둘 간의 체제경은 사실상 더 강화되었다.²³⁾ 이러한 남북의 적대성은 사회·정치적 차원의 구조적인 강제성을 가진 기제로써 작동하고 있다. 전후 남북은 체제 정당성을 위해 민족적 리비도를 이용했다. 남한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민족의식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를 끊

21) 권혁범, 위의 글, p.173.

22) 김종근,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51, 2011.5, 37-65, p.39.

23) 김종근, 위의 글, p.110.

임없이 환기시키며 신민화하였다. 이것은 남북이 적대적 상호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독재를 유지하는 기제로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단구조는 인간의 의식과 행위 없이 그냥 작동할 수 없다. 때문에 분단의 지배질서는 이데올로기적 강제만이 아니라 대중의 일상에 내면화된 그들의 ‘동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육, 대중 매체 등의 일상적 반복을 통해 체화된 무의식적인 동의를 포괄한다.²⁴⁾ 분단 트라우마는 남북의 적대성을 재생산하는 자발적 동조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구조론적 접근을 방법론적으로 보완하여 총체적인 분단현실 이해에 도움을 준다.²⁵⁾

분단 트라우마는 사회 구조적으로 지속되며 재생산되는 증상을 보여왔지만, 오랜 시간동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대별로 대중이 원하는 가치가 변해오면서도 사회적 무의식으로서의 트라우마는 잠재기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세대의 변화에 따라 재생산되면서 현대의 사회문제와 착종되어 그 양상도 함께 변해왔다.

2장에서 살펴본 반공주의로 대표되는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기제로서의 분단 트라우마는 전쟁 직후 한국사회와 전쟁을 겪은 1세대들에게서는 보다 파악이 용이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2장 2절의 반공주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할수록 하나의 헤게모니는 같은 형태를 띄지 않는다. 강한 규제의 용도였던 반공주의 또한 현대로 올수록 드러나는 양상이 변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빨갱이’ 논리로 사회에서의 이분법적 매도 수단이 아니라, 반공주의는 사람들의 사유체제로 들어와 자기 검열성과 감시성의 일상화가 되었다.

이렇듯 같은 헤게모니라고 할지라도 세대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하는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80년대까지 독재정권이 북과의 적대적 상호 의존성에 기대어 국가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이용한 반공주의가 민주화와 탈 냉전체제기에 들어선 90년대에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분단 트라우마가 사회에 체화된 양상의 역추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가장 당시의 대중적 정서와 인식을 읽기에 용이한 매체를 영화라고 보고, 영화 분석을 통해 분단 트라우마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영화의 텍스트만을 분석하지 않고 영화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첫째로 영화가 제작된 시기와 과정 등 제작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연출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극 안에서 북을 그리는 모습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당시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영화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영화’라는 다양한 정보가 담긴 매체로 말미암아 분단에 대한 90년대 사회의 인식을 읽고, 체화된 반공주의가 90년대의 흐름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갔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2) <남부군> 1990.5.15 : 역사의 재인식

① 제작 배경

전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차원의 반공영화가 제작되고 영화에서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반공법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화 제작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았던 것

24)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성격과 윤리성 고찰」, 『시대와 철학』 제22권 1호, 2011, p.169.

25)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52, 2011, p. 49.

은 1987년에 외화수입의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외화수입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1989년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 영화 직배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된 한국영화는 새로운 단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검열 규정을 완화하여 외화와 경쟁할 수 있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정책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경제적으로 산업의 고도성장 시기이자, 민중의 수난기이기도 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계속된 경제 고도성장정책은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게다가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로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국군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결국 1987년에 민주화의 열기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국외정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를 분단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던 냉전체제 또한 해소되어 가고 있었다. 국내에서 민주화의 열망이 6월 항쟁으로 터져 나왔듯이, 냉전 해체의 분위기는 1990년 독일통일과,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처음으로 빨치산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역사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남부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작되었다. 1990년 5월 15일에 개봉한 <남부군>은 이태의 빨치산 체험수기를 원작으로 한 『남부군』(1988)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제작기간만 3년이 들었는데, 촬영 당시 ‘지리산 공비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제작의도로 인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은 지원과 협조를 거부하였다. 때문에 제작팀은 무기 등을 사제로 만들어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90년대 초에는 민주화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80년대와 다르지 않은 반공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작품 분석

냉전해체의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영화 <남부군>은 빨치산을 최초로 인간적으로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빨치산들을 ‘사상’을 떠나서 그 험난한 산 속까지 들어간 신념과 의지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였다. 주인공 이태(안성기)에게 다쳐서 업혀가는 빨치산 아이가 이런 대사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이는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선택한 의도는 아이의 순수함처럼 좋은 세상을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을 벗고 빨치산을 묘사한 부분이다. 50년대의 영화 <피아골>에서 빨치산을 잔인하고 광기에 찬 모습으로 그린 것과 순수한 빨치산 아이의 등장은 그 대비가 도드라진다.

<남부군>에서는 빨치산의 인간적 묘사를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였지만, 국군과의 대치 상황에서의 연출을 통해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

산 속의 민가에서 국군과 마주쳐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중이던 빨치산과 국군 사이로 강아지를 쫓아 나온 민가의 아이가 뛰어 들어온다. 그러자 빨치산들이 먼저 총격을 멈추고, 이어서 국군도 총격을 멈춘다. 각 진영에서는 아이를 향해 자기들에게 오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이는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이내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자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며 퇴장한다. 하지만 총격을 멈춘 두 진영은 큰 목소리로 짧은 대화를 주고

받는다. 아이로 인해 충격을 멈춘 것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리고 짧은 대화가 끊기자 빨치산들이 노래를 시작한다. 그리고 국군 일부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충격이 오가던 대치 상태는 기묘하게 흘러간다. 이에 민가에서 숨어있던 민간인들도 나와 상황을 지켜 본다. 그리고 빨치산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국군은 공격을 더 감행하지 않고 조용히 퇴각한다.

이 장면의 연출에서도 빨치산에 대한 인간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묘사가 엿보인다.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죽음만이 난무했을 전투로만 묘사되었던 전쟁의 모습이, 서로가 아이를 쓰지 않는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며, 또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민족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영화는 한국전쟁에 대하여 그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낸다.

김영(최민수) : “제가 입산한 것은 이 시대가 내게 좌든 우든 둘 중하나의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라면, 예,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더구나 같은 핏줄끼리 죽어야 하는 비인간적 상황이 인간적인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모순은...”

빨치산 대원 : “어느 쪽에도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애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스스로 몰아내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해방을 얻은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남조선 인민의 줄기찬 항쟁도, 조국전쟁이라는 이름의 비극적인 싸움도 바로 거기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과 북 그 어느 쪽이 이긴다 해도 그건 우리 조선 인민의 승리가 아니라 소련이나 미국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위의 대사에서 보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시선은 반공 영화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대사에는 분단이 냉전체제의 산물이었으며, 한국전쟁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을 공격할만한 명분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저 동족 간의 비극이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분단과 전쟁의 기원이 일제시기의 해방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짚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는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본국과 연락도 끊기고 결국 추위와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빨치산들의 죽음이 잊혀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끝을 맺는다. <남부군>은 기존 반공영화에서 인민군이나 빨치산, 공산주의자들은 만행을 저지르는 악인으로만 그려졌던 것과 달리, 한국전쟁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죽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논리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③ 사회적 수용양상

<남부군>은 개봉이후 80년대까지 전후 복구와 산업화, 독재정권과 민주화의 열망 등에 가려져왔던 분단에 대하여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부군>은 개봉 20일 만에 50만의 관객을 모았고, 단체 입장이 쇄도하였다. 북에 대해 다르게 그린 영화에 대한 이러한 호응은 80년대까지 대중에게 북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영화는 「남부군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6·25 이전 세대와 전후세대가 빨치산의 해석을 놓고 뚜렷한 이견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 감시 하에 제작된 반공영화에서 인민군은 비인간적으로만 그려졌고,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에 민중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체로 이 영화에 대해 “6·25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전쟁이었다”, “관객이 몰리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추구에 대한 공감대가 붓물처럼 터지는 것”, “최근의 동서화해무드에 걸맞게 이 영화가 남북 간 냉전이데올로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지만, 동시에 상반된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공무원경력인 윤화용씨(65·서울신월1동121)는 “헛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비극을 보고 대학생들이 좌경운동권논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관람소감을 썼다.²⁶⁾

이러한 반응은 한국 사회의 무의식 구조에 분단 트라우마로서 반공주의가 여전히 그 자체의 논리로 깊게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자체에서도 주인공이 왜 빨치산으로 들어갔고 정확히 빨치산이 어떤 존재인지 등에 대한 설명과 도입부의 개연성이 부족했는데, 이는 빨치산을 인간적으로 그린 영화의 도입부에 반공주의로 인해 인민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관객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사회는 군사적 대치상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시체제에서 나타나는 상호적대적 심리가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이데올로기 갈등은 일상생활에서도 상호불신과 적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 트라우마로 인한 적대성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서로에게 투영되어 남남갈등의 기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²⁷⁾ 따라서 이러한 분단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 즉 세대를 이어가면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의 성격은 이차적 트라우마로 작동한다. 영화에 대한 반향으로 시작한 의견 차이가 전쟁 이전 세대와 전후 세대를 구분짓게 하고,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 또한 분단 트라우마가 양산한 이차적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남부군>은 민주화와 탈냉전의 시대 흐름을 타고 영화에서 ‘분단’을 그리는 방식을 기존의 반공영화를 탈피하였고, 분단영화의 시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공에 가리어져 있던 역사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3) <태백산맥>1994.09.17 : 휴머니즘의 등장

① 제작 배경

<남부군>이 개봉하던 해인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었고, 그 이듬해에는 소련이 해체되며 세계는 탈냉전기로 접어들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민주화 이후 1993년에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며, 한국에도 신자유주의의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26) 「빨치산 영화 <남부군> 20일새 관객 50만명」, 중앙일보 1990.06.23, 종합 17면.

27)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52, 2011, p. 52.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국제정세가 탈 냉전체제로 전환되자 북에 대한 국제적인 고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아사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태백산맥>은 바로 이 시기에 개봉하였다.

② 작품 분석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원작으로 제작된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은 원작과의 차이가 크다. 원작은 1983년~89년까지 월간 <현대문학>에 연재된 대하장편소설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부에서는 여순사건의 반란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빨치산이 입산하게 된 배경과 빨치산 유격전과 군경의 토벌작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3부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의 발발과 빨치산의 하산, 미군의 참전과 빨치산의 재입산, 그리고 좌우익의 극한 투쟁을 다루고 있다. 제4부는 휴전협정의 조인을 다루고 있으며 투쟁의 방향을 ‘역사투쟁’으로 바꾼 후, 중시인물인 전남 보성 지역 좌익 리더 염상진의 죽음으로 소설은 끝난다.²⁸⁾

기본적으로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원작을 한 편의 영화에 모두 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임권택은 영화에서 보다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영화 <태백산맥>은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그렸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묘사는 그들의 행위를 보다 인간적인 이유로 그려내고 있다.

염상진(빨치산 대장)의 아내가 취조받는 장면

아내 :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쇼. 자식이 굶으니까 빨갱이 짓 하지, 빨갱이 짓해서 굶는 건 아니여.”

염상진의 아내의 대사에서 좌익활동을 하는 이들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선택한 이유가 인간적인 생존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멸공대를 자처하며 좌익가족들을 폭행하고 다니는 이들에 대한 제제를 위해 토벌대장을 만나는 장면.

김범우(안성기) : “...아무리 좌익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죠.”

또한 김선생의 대사에서 공산주의자들 또한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장면에서 <태백산맥>이 보여주는 ‘반공’자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시도가 드러난다.

멸공대를 자처하며 좌익가족들을 폭행하고 다니는 이들에 대한 제제를 위해 토벌대장을 만나는 장면.

토벌대장 : “우리 선친도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지주였소. 그런데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토지를 몰수하고 선친을 반동으로 몰아 처형해 버렸어...그게 공산주의의 정체가야! 그런데 말이여, 당신들 이남 사람들은 빨갱이의 정체를

28) 서정남, 『트라우마로 읽는 21세기 한국영화』, 한울, 2014, p.38.

모르는 것 같어. 그카니까 너도나도 미쳐 날뛰고 있지...빨갱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빨갱이한테 무슨 재판이 필요해! ...앞으로 빨갱이를 동조하는 자는 빨갱이로 취급하겠소. 모두 조심들 하시오.”

토벌대장을 만나고 나오며 김선생(안성기)와 국민학교의 교장이 밤거리를 걸어가며 대화하는 장면.

교장 : “빨갱이라는 말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는 말과 뜻이 같으면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소만, 오늘 토벌대장이 하는 빨갱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와 살기를 품고 있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오고가는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이렇듯 이 영화는 전후 한국사회를 규제해온 반공주의의 모습 자체를 극단적이고 포악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기존의 반공영화를 넘어서 한국 내에서의 ‘반공’자체의 극단적인 모습,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공의 논리에서 한 발 떨어져서 그것을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천형은 ‘빨갱이, 친북으로 찍히는 것’이었다. 철저히 반공주의 사상적 단순성과 확실성이 강했기 때문이다.²⁹⁾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단순성과 확실성에서는 한 발짝 벗어나 보기 시작한 것이다.

영화에서는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북을 그저 ‘적’으로만 대상화시켜온 반공논리의 기저에 있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다. 기본적으로 농촌사회였던 근대의 한반도에서 일제시기 농지의 극심한 수탈을 겪고 농지의 소유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어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그 민중적 열망에 깊게 파고 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군이 빨치산 토벌을 위해 별교에 들어서고, 토벌대장이 김선생(안성기)를 찾아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묻는 장면.

심재모 : “대체 이 별교란 어떤 곳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좌익이 많이 나왔고, 좌우의 갈등이 심했는지요?”

김선생 : “별교에서의 좌익갈등은 땅에서 시작되었고, 땅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 땅의 문제는 일제 침략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착수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8년간 토지조사라는 것을 벌여 농민들의 땅을 약탈하였는데, 그 결과 농민의 8할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8할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급락 농가가 된 것이 식민지의 현실이었죠. ...근데 미소에 의해 점령된 남북 지역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북이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한데 반하여 이남에서는 자기 재산을 앓아서 뺏길 수 없다는 지주들의 강한 반발들 속에서 농지개혁은 자꾸 미뤄지고 그에 따른 작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면서 지주와 소작간에 땅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그 갈등의 틈을 좌익이 파고들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몰수·무상분배는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소작들의 열망과 잘 맞아 떨어지고, 그 결과 많은 소작들은 사상이 뭔지도 모른 채 사상에 동조하거나, 좌익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여순 때 많은 소작들이 입산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29) 권혁범, 위의 글, p.163.

이 장면에서 사상의 대비 속에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욕망이 전제되어있으며, 그것은 일제시기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선생의 논지는 극 중 장면에서 계속 표현되고 있다.

같은 마을 내에서 어린아이들끼리의 싸움으로 굶은 상처로 그 어머니들 끼리 언쟁하는 장면. 때린 아이의 집안이 좌익활동을 한 염상진의 집이고, 상처 난 아이의 아버지는 좌익에게 목숨을 잃은 집안인 상황.

다친 아이의 어머니 : “빨갱이 집안 새끼하고 순사집안 새끼들은 다 저승까지 가서도 상극인게 다시는 우리 집안 아들하고 못 놀게 만들어!”

위 장면에서 일제에 대한 증오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를 한데 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소작인들이 좌익에 가담하는 장면에서도 땅에 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좌익에 동조하게 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소작인들의 동의 없이 땅을 매각한 지주를 찾아가 테러하고 산으로 돌아온 소작인이 환영식에서 나서서 인사하는 장면.

소작인 “...지는 공산주의가 뿔인지, 혁명이 뿔인지 암것도 모르는구마니라. 일 저질러 놓고 오갈 데가 없어서 무작정 최서방을 따라왔는디요. 아따 요로코롬 반갑게 대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구마니라.”

이 대사에서 좌익에 가담한 소작인들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택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단순한 이유로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묘사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김선생과 소작인 한 명이 넓은 농지 사이를 걸어가며 대화하는 장면.

소작인 : “저 서방님. 좌익들이 그들 세상 되면은 지주들 전답 싹 뺏어가지고 작인들한테 골고루 갈라주겠다는 것이다. 고것이 참말일꺼라우?”

김선생 : “문서방 생각으로는 참말 같수?”

소작인 : “아 그렇게만 되면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서도, 세상에 그렇게 기막힌 인심이 또 어디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선생 : “문서방도 땅을 갖고 싶지요.”

소작인 : “하튼요. 살아생전에 안 되면 저승에 가서라도 풀고잡은 소원인디요.”

김선생 : “그럼 그 소원이 풀려 열마지기 썸 되는 농지가 생겨 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쌀을 나라에 내놓고 매달 배급을 타 먹는 건 어땠소?”

소작인 : “미쳤어라우? 지가 지은 농사 지 손으로 간수하는 맛에 살지, 무슨 초친 맛에 배급을 타다 먹어라우.”

김선생 : “그럼 이건 어땠소.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정해진 배급을 타 먹는 것 말이요.”

소작인 : “아이고, 니것도 내것도 아닌 눈에, 그놈의 농사 잘도 해 먹었소. 아, 내 터밭의 배추가 주인집 터밭의 배추보다 속살이 더 잘 여문다는 이치가 뭇디라우.”

김선생 : “좌익이 논을 분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요.”

소작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꾸를 못한다.

넓은 논밭을 걸어가며 대화하는 이 장면은 또한 소작인들이 공상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세 장면은 김선생이 계엄군과의 대화에서 주장한 설명이 영화에서 말하고자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한국전쟁에 대한 허무함을 그리고 있다.

좌익군이 마을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염상진(좌익군 대장)과 김선생이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장면.

김선생 :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상호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어떠한 사상도 사람을 구원할 순 없습니다.”

밤새 곳을 끝내고 돌아가는 무당 소화와 김선생이 좌익들이 철수하고 떠난 마을 거리한 복판에서 대화하는 극의 마지막 장면.

김선생 : “산자들의 목숨조차 이렇게 가벼이 여겨지는 때에 죽은 자의 목숨을 그리 정성스리 다루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소.”

마지막 장면의 김선생의 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한국전쟁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며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무당 소화로 그려지는 ‘곳’의 묘사는, 영화에서 전쟁을 치르고 죽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로 그려진다. 좌익군이 철수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해서 곳하는 소리가 깔리고, 마지막에 김선생의 대사에 무당 소화는 이렇게 대답한다.

소화(무당) : “곳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리라. 그네들의 한을 푸는 것이겠.”

김선생 : “산 자들의 한...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소.”

곳이 산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영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전쟁이 그저 그 안에서 죽은 이들의 슬픔이 가득한 비극이었으며, 그것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수용양상

<태백산맥>이 제작, 상영되었다는 것은 한국 영화계의 반공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까지 금기의 소재를 영화화하도록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할 제작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자가 거액을 투자한 것은 해외영화제 수상이나 흥행이 예상되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예상은 1990년 이후 변화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다. 즉 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의 균열, 그에 따른 반공정책과 법, 제도의 변화 그리고 관객의 수용태도의 변화가 제작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³⁰⁾

하지만 <태백산맥>은 반공영화, 용공영화라는 엇갈린 반응이 공존한다. 실제로 영화 속에

30) 유현미, 「<태백산맥>과 반공이데올로기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4.

서도 북에 대한 이미지와 공산주의의 묘사에 대한 한계가 보인다. 우선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굿에 대한 의견 차이가 대비된다. 위의 장면에서 김선생이 굿을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사람을 위하는 세상)’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 소화와 연분을 맺은 좌익군 정하섭(신현준)은 소화에게 굿을 하지 못하게 하며 “우린 죽은 자의 혼을 믿지 않소. 죽은 뒤의 세상도.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뿐이오.”라고 말한다. 이러한 대답은 좌익군이 마을에 들어서고 형제끼리 갈라선 염상구와 염상진이 총을 겨누고 하는 대사에서 설명된다.

염상구(김갑수) : “...사람 사는 세상 만든담서 어찌 사람 목숨알기를 파리목숨 취급인가? ...사람들이 등을 돌린담서? ...겨우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당가?”

사람이 사는 현실만을 믿는다고 한 공산주의가 만든 세상이 살육만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은 마지막 장면의 염상진과 김선생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염상진(좌익군대장) ; “...반동의 피일 뿐일세. 러시아 혁명도 숙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네.”

또한 좌익군이 마을에 입성하고 만나게 된 당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들을 그런 모습에서 북에 대해 그리는 모습에 대한 한계를 읽을 수 있다. 당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들은 현지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의견과 인민선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사상 반동분자의 색출에만 혈안이 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태백산맥>은 기존까지 분단을 다룬 영화에서 담지 못했던 반공에 대한 민낯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근본적 이유와 한국전쟁의 무상함과 애도 등을 그려내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렇듯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임권택의 <태백산맥>은 그 사회의 반향 또한 둘로 갈렸다. 관객들은 영화에 대해 “세련된 반공영화를 본 기분이다”라고 평했다.³¹⁾ 또한 한겨레는 “소설 <태백산맥>으로 원작자가 불구속 기소된 우리 사상 풍토에서 비상식적으로 공론에서 무수정 통과된 영화 <태백산맥>은 국민에게 이성적으로 평가되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희망이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³²⁾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반응은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가 한국전쟁과 북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를 가진 각색을 거친 영화에 대하여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고 본다.”, “원작의 내용과 다르게 각색했으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절제된 표현이 돋보였다.” 등의 평가도 여전히 존재했다. 더군다나 영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관련 논란은 원작자를 고발한 자유민주애국수호연합(자민련)등 우익단체에서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전국 극장연합회 측과 서울 시내 극장에 소설과 내용이 동일할 경우 영화상영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임권택 감독은 공론심의가 끝난 뒤 “이념의 허구와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을 것이라는 연출의도를 밝혔는데도 주변의 압력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³³⁾

31) 한겨레, “영화 <태백산맥>실망 원작 인물 왜곡 묘사”, 1994.

32) 한겨레, 위의 글.

관객들이 “세련된 반공영화”라고 느낀, 원작과 다르게 각색되어 당시의 공론심의에서 문 제없이 통과 된 것 자체도 아직 1990년대가 가지고 있는 반공주의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자민련 등 우익단체의 반응은 이 정도의 각색을 거쳤음에도 <태백산맥>에 서 그려진 반공과 공산주의의 모습이 그들에게 격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협박성을 띄는 우익단체의 행동은 북에 대한 적대성을 남한 사회 내에서도 서로에게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남갈등의 기저에 깔린 적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태백산맥>은 반공장르와 대항영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영화 자체는 반공주의를 떨어져서 보기 시작했지만, 사회의 반향, 특히 우익의 태도는 여전히 반공주의의 아래에서 북에 대한 적대성을 남한 사회 내에도 투영하여 거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원작과는 전혀 다른 결말로 각색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는 “세련된 반공영화”로 느끼 게 한 것은 아직은 90년대 분단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한계는 또 한 임권택 감독이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직은 북에 대한 국가차원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여전히 분단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휴머니즘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쉬리> 1999.02.13 : 분단현실의 인식

① 제작 배경

<남부군>(1990)이후 다시 북에 대해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린 영화 <쉬리>가 나오기까지, 거의 10여년이 걸렸다. <남부군>이 개봉한 해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고, 그 이듬해에 소련이 해체하면서 국제정세는 완전히 탈냉전체제 이행기로 들어섰다. 나아가 1993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물결에 한국도 탑승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 최초로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김대중정부가 들어섰다. 같은 해 6월에는 동해안으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 회장이 소 때를 이끌고 방북(1998년 10월)하며 남북 화해의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다. <쉬리>는 이와 같은 해 6월 비밀리에 첫 촬영에 들어갔다. 제작비가 30여억 원이 드는 당시로서는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IMF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삼성영상산업단의 투자를 받아 촬영에 들어갔다.

② 작품 분석

<쉬리>는 남한에 내려올 북한의 간첩들이 혹독하고 잔인한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또한 그 중 여자 요원 이방희(김윤진)가 남에 침투하기 전, 가족사진을 불로 태우는

33) 동아일보, “영화 <태백산맥> 관객은 어떻게 볼까”, 1994.

34) 유현미, 위의 글, p.4.

장면은 가족보다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북한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요원 대장인 김무영(최민식)이 남한 특수비밀요원 유중원(한석규)에게 전화통화로 한 대화에서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더해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무영(최민식) : “홍청망청 술 처먹고 껍뻍되는 꼬라지가 아주 볼 만하구만. 북쪽의 내 형제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여긴 아주 배때지에 오물이 썩어 넘치고 있어. 아주 불공평한 세상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너희들이 한가롭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우리의 인민들은 못 먹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썩은 치즈에 콜라, 햄버거를 먹고 자란 이들이 알 리가 없지.”

분단상황이 깊어지면서 남북의 모습도 변했고, 발전양상도 뒤바뀌었다. 당시 1990년대 중반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위의 김무영(최민식)의 대사에서 현재 남한이 더 잘 살며, 지금 시기의 북한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빈곤하고 불쌍하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동시에 매우 호전적인 말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쉬리>가 북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지만, 아직 북에 대한 호전적인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액션영화의 긴장감을 위해 충격을 벌이는 북의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지만, 북 전체를 이와 같은 테러리스트로 그리지 않았다. 북 내부에서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전쟁을 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극단적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그렸다. 이는 기존까지의 반공주의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자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가 축소되어 그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북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함께 전후 4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남북 정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타난다. 극 내에서 남북이 단일 월드컵 축구팀을 결성하고 남북화해를 위한 대화를 한다는 설정을 두고 극중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말한다.

김무영(최민식) : “50년간을 저 고매한 정치인들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작 저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아. 잘 짜여진 연극 한 편을 보고 있는 셈이지.”

유중원(한석규) : “착각하지마. 통일을 원하는 건 니들만이 아니야. 아직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때야...지난 50년 동안의 아픔과 역사가 ‘한 사람의 착오’때문이었다는 걸 명심해.”

영화의 설정에서 남북 정권이 화해를 말하는 정세 속에서도 실질적인 분단 한반도의 분위기는 이와 같은 긴장상태라는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쉬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영화의 아주 중요한 기점요소이다. 앞의 두 영화에서도 북에 대한 인간적인 시선과 한국전쟁에 대한 시선이 드러났지만, 역사의 재인식 단계에 머물렀다. 또한 <태백산맥>은 그 원작의 내용마저도 각색하고, 휴머니즘으로의 방향성만을 가졌다. 그리고 <남부군>이 나오고 거의 10년 만에 역사의 재인식을 넘어 분단 현실을 그리고 남북의 체제와 통

일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북의 간첩이지만 주인공 남한 특수요원 유중원(한석규)을 진심으로 사랑한 이방희(김윤진)의 인간적 묘사와, 마지막에 유중원(한석규)이 “오늘날의 분단 현실이 그녀를 히드로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대사에서 분단이 북의 극단적 행동이나 서로 간의 또 다른 상처와 비극을 양산해 낸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③ 사회적 수용양상

북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꼬집은 <쉬리>의 흥행은 단순히 분단영화사의 기점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기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쉬리>의 흥행은 남북문제와 분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한반도의 문제 중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북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통일’을 언급한 영화의 흥행은 당시의 한국 사회가 그와 같은 이미지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음의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사설] “영화 '쉬리'돌풍이 뜻하는 것”

한국영화 '쉬리' 가 뜨고 있다.

...이 영화는 남북 분단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햇볕정책 이후 우리의 현실문제로 부각된 남북문제에 대해 관객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답을 얻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북 간 무력, 폭력대결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생각을 담은 영화다.³⁵⁾

이런 변화는 기사에서도 보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햇볕정책으로 인한 남북교류와 화해무드가 이루어지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흥행의 대상은 90년대 후반 당시의 젊은 세대 층이었다. 그 사실은 <쉬리>열풍이 불자 당시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쉬리>를 관람하고 다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심찾아 분주한 정치권] '쉬리' 본李총재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도 28일 한국 영화 '쉬리' 를 봤다. 날마다 흥행기록을 깨고 있는 극장(명보시네마 월드) 앞에서 李총재는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와 함께 줄을 섰다.

李총재가 영화관에 간 것은 97년 대선 패배 후 처음. 영화를 보기 전 李총재는 부근 패스트 푸드점에서 '젊은이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³⁶⁾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 직원들이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방한하여 정부 인사들을

35) 중앙일보, [사설] “영화 '쉬리'돌풍이 뜻하는 것” 1999.02.22, 종합 6면.

36) 중앙일보, “민심찾아 분주한 정치권] '쉬리' 본李총재”, 1999, 종합 4면.

만나고 있던 시각에 단체로 <쉬리>를 관람하러 간 것이 이슈가 되면서 반향이 일어났다.

[사설] 페리대신 '쉬리'본 통일부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고위인사들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시선이 집중된 9일, 정부 대북정책의 주무부(主務部)인 통일부의 강인덕(康仁德) 장관 등 간부들이 영화 '쉬리'를 관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저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³⁷⁾

'페리' 등지고 '쉬리' 보러간 통일부 간부들

9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 맞은편 문화관광부에 통일부 간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쉬리'를 보려고 강인덕(康仁德) 장관과 정세현(丁世鉉) 차관을 비롯한 30여명의 간부가 나타난 것. 이들이 6시 시작시간에 맞추느라고 서둘러 자리를 떠 업무는 일찌감치 마비됐다. 영화상영에 들어가자 뻘뻘.핸드폰도 꺼버려 연락조차 끊겼다. 같은 시각 청와대는 김대중 대통령과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면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외교통상부도 언론보도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느라 진땀을 뺐다. 그런데 대북문제 주무부처인 통일부 간부들은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
 통일부의 한 직원은 "대북정책 총괄부서 간부들이 '페리'를 외면한 채 '쉬리'를 좇아간 것은 심했다"고 했다.
 이영종 기자³⁸⁾

위의 이회창의 기사에서 보듯이 당시 <쉬리> 열풍에 정치인들이 관람을 다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리에서 소외되었던 통일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 영화가 <쉬리>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정치인들이 '젊은이에게 인기'를 위해서 <쉬리>를 공공연하게 관람하고 다녔다는 것은 90년대의 젊은 층에게 큰 거부감 없이 액션영화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통일부' 직원이 대북정책조정관이 방한한 시점에 북을 인간적으로 그런 영화 <쉬리>를 보러갔다는 사실이 부정적 반향을 일으킨 점은, 일상에 내면화 된 분단 트라우마가 보이지 않는 분단 규율로 작동하며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가 흥행하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통일부'와 <쉬리>라는 키워드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것은 90년대가 이전의 확실성의 압력이 강했던 반공주의를 탈피하면서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과도기적 한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분단 트라우마는 여전히 북에 대한 적대성을 남한 내부에 투영시키며 나타났다. 일련의 반응들은 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37) 중앙일보, [사설] "페리대신 '쉬리'본 통일부", 1999, 종합 6면.
 38) 중앙일보, '페리' 등지고 '쉬리' 보러간 통일부 간부들, 1999.03.10, 종합 3면.

“...다소 야박하게 쿤데라 식으로 말한다면 '쉬리' 는 부도덕한 영화다. 존재의, 지금 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면을 찾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안타깝다. 액션은 다른 우리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감하고 정교했으나 이야기의 뼈대는 앙상하고 더러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영화와 영화를 만든 이와 관객 모두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현상에 그래 나는 돌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다.”³⁹⁾

<쉬리>가 개봉한 것이 1999년. 전후 50여년이 지나 사회를 이끄는 세대 또한 변했지만 여전히 적대성이 재생산되며 세대를 따라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90년대의 젊은 세대층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단현실인식에 있어서 거부감이 약해졌다. <쉬리>의 흥행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화해무드 등의 정세적 배경을 기반으로 북에 대한 강한 반공주의의 적용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전히 북에 대한 반공적대성을 한국 사회에 내재화 시키는 이들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결론 : 90년대의 분단영화를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 이후 탈냉전기가 본격화되자 분단영화에서 그려지는 북의 모습은 사뭇 달라지고 있다.

처음으로 빨치산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린 영화 <남부군>은, 민주화와 탈냉전의 시대 흐름을 타고 영화에서 ‘분단’을 그리는 방식을 기존의 반공영화를 탈피하였고, 분단영화의 시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공에 가리어져 있던 역사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부군>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왜 빨치산으로 들어갔고 정확히 빨치산이 어떤 존재인지 등에 대한 설명과 도입부의 개연성이 부족했다. 이는 빨치산을 인간적으로 그린 영화의 도입부에 반공주의로 인해 인민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관객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영화에 대한 양분된 사회에서의 의견 차이가 전쟁 이전 세대와 전후 세대를 구분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된 세대 간에 갈등을 빚는 모습은 분단 트라우마가 양산한 이차적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영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영화초입에서 빨치산에 대한 설명과 개연성부족은 90년대 초에 반공주의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태백산맥>은 반공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데올로기 갈등의 기저에는 남북을 망라한 농토에 대한 민중적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리고 <남부군>이 빨치산을 인간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데에 그쳤다면, <태백산맥>은 공산주의자들의 에 대한 인간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무상함과 애도에 대해 그렸다.

하지만 극 자체는 반공주의를 떨어져서 보기 시작했지만, 영화가 원작과 전혀 다른 결말로 각색하여 공론심사를 통과하여 젊은 세대들에게는 “세련된 반공영화”로 인식되었다. 또

39) 중앙일보, [기고] “'쉬리' 돌풍 좋아만 할 일인가”, 1999, 종합 42면.

한 그림에도 태백산맥을 원작으로 한다는 이유로 자민련 등의 우익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런 우익단체의 모습은 극에서 시도한 모습이 무색하게 반공논리의 적대성을 남한 사회 내에 투영시킨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태백산맥>은 원작과 많이 다르게 각색되었다. 영화는 휴머니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각색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좌익군대장 염상진이 사상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장면은 원작과는 정반대이다. 이는 결국 체제의 승리라는 선전으로 극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러한 휴머니즘의 시각 근거에는 북에 대한 체제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채 등장인물에 대한 시각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분단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휴머니즘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쉬리>는 역사적 재인식을 넘어 분단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을 그려내고 있다. 앞의 두 영화에서도 북에 대한 인간적인 시선과 한국전쟁에 대한 시선이 드러났지만, 역사의 재인식 단계에 머물렀다. 또한 <태백산맥>은 그 원작의 내용마저도 각색하고, 휴머니즘으로의 방향성만을 가졌다. 그리고 <남부군>이 나오고 거의 10년 만에 역사의 재인식을 넘어 분단 현실을 그리고 남북의 체제와 통일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여전히 북에 대해 호전적인 이미지를 탈각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북은 한국보다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북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난다.

90년대 후반이 되자 젊은 세대 층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단현실인식에 있어서 거부감이 약해졌다. <쉬리>의 흥행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화해무드 등의 정세적 배경을 기반으로 북에 대한 강한 반공주의의 적용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전히 북에 대한 반공 적대성을 한국 사회에 내재화 시키는 이들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90년대가 되고 한국사회는 국내외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후 분단국가의 고착화는 분단 트라우마를 만들고, 국가는 인접한 적에 대한 적대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규제하는 기제로 삼아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반공주의다. 전후 몇 십 년을 브라운관까지도 차지하고 있었던 반공주의는 민주화와 탈냉전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미 사회의 무의식 속에 내재화된 분단 트라우마로서의 반공주의는 세대가 변해도 이어져 내려오며 드러나는 증상만 변했을 뿐 계속 존재해왔다. 본문에서는 90년대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분단 트라우마의 모습을 분단영화의 전반을 통해 살펴보았다.

90년대의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탈 냉전체제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80년대까지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의 모습은 점차 분리해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영화 자체에서 그리는 모습이나 사회적 반항이나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화해무드가 형성되면서 남북의 체제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변화는 동시에 확실한 반공주의에 입각한 자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들 간의 간극을 벌여놓아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반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의 한국은 반공주의, 즉 체화된 헤게모니가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단영화의 흐름을 읽고 한국 사회의 분단 트라우마를 분석하는 접근을 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어 있는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진행됐을 때, 분단 트라우마로 인해 유발

되는 사회문제의 치유와 분단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남남갈등 등으로 대표되는 남북교류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분단의 해소,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논문

- 김성민·박영균,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시론적 성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1.
- 김의수,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김종균,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 51, 2011.5, 37-65,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 『문학치료연구』 제27집, 2013.
- 김종곤, 「‘역사적 트라우마’ 개념의 재구성」, 『시대와 철학』 제24권 4호(통권 65호), 2013.
- 김충국, 「분단과 영화」, 『한국민족문화』 53, 2014.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출판사, 2000.
-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52, 2011.11, 47-70, 「분단 트라우마의 성격과 윤리성 고찰」, 『시대와 철학』 제22권 1호, 2011.
- 이순진, 「민주화운동과 문화,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 1950년대 문화영화에서 구축된 ‘이승만 서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 23집, 2010.
- 이영일, 「영화 : 분단비극 40년 영상 증언한 한국 영화」, 『북한』, 1984.
- 정영권,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연구 : 1949-1968 전쟁영화와의 접합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유현미, 「<태백산맥>과 반공이데올로기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단행본

- 강성률, 『영화는 역사다』, 살림터, 2010.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지음,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선인, 2012.
- 서정남, 『트라우마로 읽는 21세기 한국영화』, 한울, 2014.
- 원원, 『한국영화와 민족주의』, 박문사, 2016.

기사

- 동아일보, “영화 <태백산맥> 관객은 어떻게 볼까”, 1994.09.10.
- 중앙일보, “빨치산 영화 <남부군> 20일새 관객 50만명“, 1990.06.23, 종합 17면, [기고] “‘쉬리’ 돌풍 좋아만 할 일인가”, 1999.02.25, 종합 42면, “민심찾아 분주한 정치권 ‘쉬리’ 본李총재”, 1999.03.01, 종합 4면, [사설] “페리대신 ‘쉬리’본 통일부”, 1999.03.11, 종합 6면, [사설] “영화 ‘쉬리’돌풍이 뜻하는 것” 1999.02.22, 종합 6면, ‘페리’ 등지고 ‘쉬리’ 보러간 통일부 간부들, 1999.03.10, 종합 3면.
- 한겨레, “영화 <태백산맥>실망 원작 인물 왜곡 묘사”, 1994.09.28.

영화

- 강제규, <쉬리>, 1999.
- 임권택, <태백산맥>, 1994.
- 정지영, <남부군>, 1990.

「1990년대 한국영화로 본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토론문

남경우(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별지 첨부>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시대 귀속 문제

곽아람(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목차 -

- I. 머리말
- II. 남과 북 문학사의 <정읍사> 서술 시각
 - 1. 남한의 서술 시각
 - 2. 북한의 서술 시각
- III. <정읍사> 발생 시기에 대한 논쟁
 - 1. 남한: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고려 혹은 백제의 노래로
 - 2. 북한: 고구려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통일신라에서 백제의 노래로
- IV.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위치
- V. 맺음말

I. 머리말

어느덧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을 넘어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민족으로 공유한 세월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무려 72년이나 다른 삶을 영위해온 남북이 같은 사고와 동일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문학작품에 대한 시각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사에서도 통일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남과 북에서 연구한 기존의 업적들을 기반으로 통일문학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여러 연구들이 접점을 찾아야 하며, 또한 북한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도 함께 논의되어 남한과 북한의 통일된 시각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¹⁾

현대문학은 남과 북의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공통된 작품도 적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해 평가가 양극화되어 있어 통일문학사를 서술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전문학은 현대문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과 북이 비교적 쉽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공동의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정읍사>(井邑詞)는 남한 내에서도 여전히 시대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북한 내에서도 여러 주장이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의 합일점을 찾고 통일문학사를 준비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작품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읍사>는 충분히 남북의 문학적 시각이 충돌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접점을 찾아 합의를 한다면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정읍사>는 『고려사』(高麗史) 악지 무고조(樂志 舞鼓條)와 삼국속악조(三國俗樂條)에서

1) 김종근, 「통일문학사에서의 소설의 기원 문제」, 『겨레어문학』 제28집, 겨레어문학회, 2002, 32쪽.

최초로 언급되는데, 노랫말은 수록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성종 24년에 완성된 『악학궤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의 뜻에 따라 정인지와 김종서 등에 의해 문종 1년에 『고려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읍사>와 관련된 모든 언급들은 조선시대의 기록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조선의 기록으로 <정읍사>의 발생 시대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한 가지 작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후의 모습은 이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남한의 연구 성과가 상충되면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 이후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며, 그 방법은 현재까지의 문학적 성과를 서로 검토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통일문학사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연구 성과를 내었는데, 김종근²⁾은 남북한문학사에서 이야기 문학의 평가에 주목하여 소설의 기원 문제를 다루고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합일점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풍영순³⁾은 남과 북의 문학사에 있어서 소설 기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접점을 제시하며 통일문학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였다. 조규익⁴⁾은 상고시가를 북한의 여러 문학사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범위가 상고시가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 박은경⁵⁾은 남북의 문학사를 비교하였는데, 『한국문학통사』와 『조선문학사』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신동훈⁶⁾은 남북의 고전문학사를 비교하여 문학사의 공존을 탐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김명자⁷⁾는 <동동>을 통해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서술하였다.

그 외에 통일문학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현대문학부분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남북한 문학사의 소통방안을 제시하며 통일문학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⁸⁾ 또한 한반자국 더 나아가 남북을 뛰어 넘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학사까지도 문학사에 포함시키는 통일문학사를 제시하는 연구도 눈에 띈다.⁹⁾

이렇듯 남북의 문학사를 중심으로 통일문학사를 위한 연구자들의 성과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망라하여 많이 존재하였으나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남한 내에서도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정읍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문학사에서 <정읍사>를 다루는 시각들을 살펴보고 발생

-
- 2) 김종근, 「통일문학사에서의 소설의 기원 문제」, 『겨레어문학』 제28집, 겨레어문학회, 2002, 35~53쪽.
 - 3) 풍영순, 「통일문학사에서 소설의 기점과 중국문학 수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4) 조규익, 「북한문학사와 상고시가」, 『동방학』 제32호, 동방학회, 2015, 159~181쪽.
 - 5) 박은경, 「남북한 국문학사 비교 연구: 『한국문학통사』와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6)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겨레어문학』 제27집, 겨레어문학회, 2001, 49~76쪽.
 - 7) 김명자, 「동동」,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박이정, 2015, 57~94쪽.
 - 8) 김성수, 「통일 담론과 남북한 문학사 소통방안」, 『민족문학사연구』 56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129~159쪽; 이영미, 「남북한 통일문학사 기술의 과제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50집, 한중인문학회, 2016, 55~78쪽; 김영, 「통일을 대비한 한국문학사 서술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제130호, 국어국문학회, 2002, 109~129쪽; 설성경·김영민,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제2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161~202쪽.
 - 9) 김중희, 「한민족 문학사의 통시적 연구와 기술의 방향성」,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4, 103~122쪽.

시기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남과 북의 차이를 도출하고 통일문학사 기술에 진일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부의 논의 속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북한의 문학사를 시대적 변화 양상에 따라 살펴본 후 남북의 합일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 남과 북 문학사의 <정읍사> 서술 시각

<정읍사>에 대한 언급은 1449년 세종 31년 때 편찬하여 1451년 문종 1년에 완성된 『고려사』 악지의 무고조와 삼국 속악조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이때만 해도 백제의 노래 <정읍>이라고 하며 제목만 언급될 뿐,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1493년 성종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된 『악학궤범』 권5에 가사의 전문이 실리는데, 다음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前腔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져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過篇 어느이 다 노
코시라 金善調 어기야 내가논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¹⁰⁾

원문은 위에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 한글 고어로 기술되어 있다. 띄어쓰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통 위와 같이 띄어서 읽고 해석한다. 하지만 특이하게 ‘前腔·小葉·後腔全·過篇·金善調’의 5개 단어만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前腔과 後腔全인데, 後腔全을 앞의 前腔과 함께 後腔으로 구분하고 ‘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정읍사>의 시대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1. 남한의 서술 시각

남한의 서술 시각을 살펴보기 전, 먼저 분단 이전의 문학사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술된 문학사는 안확의 『조선문학사』(한일서점, 1922)로, 그는 시대구분을 상고(上古), 중고(中古), 근고(近古), 근세(近世), 최대(最代)의 5기로 구분하였고, 문학사를 발달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서는 <정읍사>가 중고문학의 가요로 분류되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적은 작품 수지만 제목과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간략한 줄거리만 알 뿐, 원문이 현재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려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백제에는 지리산가(智異山歌) 선운산곡(禪雲山曲) 정읍(井邑) 무등산곡(無等山曲)등(等)이 있고 고구려에는 (...중략...) 차등가(此等歌)는 다 이목(耳目)에 촉(觸)하는 경색(景色)을 서(叙)한 것이 극소(極小)하고 서사(叙事)와 서정(抒情)의 시(詩)로 인정(人情)의 극미(極美)를 가(歌)하고 사실(事實)의 종횡(縱橫)을 사영(寫泳)을 한 것이 다(多)하다 연(然)이나 가석(可惜)한 것은 모도 산실(散失)해야 기(其) 진면목(眞面目)을 견(見)치 못함이라¹¹⁾

10) 성현, 『악학궤범』 권5, 1493. 고전간행회 영인본, 1933.(인용자가 읽기 쉽게 띄어쓰기를 해놓았으나 원본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11)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30쪽.

1933년에 고전간행회에서 『악학궤범』을 영인(影印), 간행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11년 전에 발간된 안학의 『조선문학사』에서는 『고려사』 악지에 설명된 <정읍>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1933년에 고전간행회에서 『악학궤범』을 출판하면서 문학사에서는 <정읍사>를 재인식하게 된다. 신학문 초기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여 가사 내용도 보지 못하고, 『고려사』 악지에 있는 ‘정읍’이라는 글자만 보고 원문을 설명한 것에 그쳤다는 것이 안타깝다.

분단 후 남한에서 발간한 문학사들은 북에 비해 많으며 저자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사 전반에 걸쳐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948년에 출판된 이명선의 『조선문학사』는 <정읍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려의 노래로 보고 있다.

고려가사는 현존하는 가사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형식상으로 보면 신라의 향가와 달라서 매우 잡연한 감을 갖게 되는데, 대체로 속가(俗歌)와 경기하여가(景幾何如歌)와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속가라 하는 것은 <정읍사>·<동동>·<처용가>·<쌍화점>·<서경별곡>·<청산별곡>·<정석가>·<사모곡>·<이상곡>·<가시리>·<만전춘>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경기하여가라 하는 것은 그 말구가 ‘景幾何如’ 또는 ‘경기하여(景幾何如)’로 맺어진 <한림별곡>·<관동별곡>·<죽계별곡> 등을 말한다.¹²⁾

이명선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위의 발췌문에서 보듯 <정읍사>에 대해 짧게 언급하였다. 가사를 중심으로 형식을 살펴보면 신라의 향가와와는 다르므로 고려 가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려 가사는 속가와 경기하여가의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정읍사>는 그 중에서도 속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은 속요는 원래 민간에 유행하는 것으로 궁정과 아무 인연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평민의 속요가 충렬왕의 궁정과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었나 하는 점이다. 이것을 명백히 하려면 충렬왕대가 고려사상의 일대 변환기였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³⁾

이렇듯 저자는 <정읍사>를 고려의 속요로 보았다. 하지만 하층민이 부르던 노래인 속요로 취급되었던 <정읍사>가 어떻게 궁중음악으로 『악학궤범』에 실리게 되었는지가 독자로 하여금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학궤범』에서 무고(舞鼓) 정재(呈才)로의 <정읍사>가 기술된 것을 염두에 두고 <정읍사>가 궁중에서 불리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원은 고려의 정치·경제·군사는 물론 언어 풍습에까지 간섭하여 철저한 폭정을 자행하였으며, 한민족(韓民族)을 제압한 그들의 눈앞에는 조선내에 있는 한문학 숭배의 관료 같은 것은 전혀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변체적(變體的)으로 궁정에 속가가 등장하게 되고

12) 이명선,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조선문학사(朝鮮文學社), 1948. 재간 범우사, 1990, 106쪽.

13) 이명선,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조선문학사(朝鮮文學社), 1948. 재간 범우사, 1990, 114쪽.

심각한 사회불안은 이것을 더욱 음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코 충렬왕 자신이 특별히 민중정신이 강하여 궁정에서 간신들과 속가를 즐긴 것도 아니고 또 원실에서 대관들과 함께 조선의 속된 가무를 연출한 것도 아니었다.¹⁴⁾

여기에서는 그 당시 속가가 궁중에서 부르게 된 이유를 당시의 시대상에서 찾고 있다. 고려 충렬왕대(忠烈王代)는 원의 간섭과 폭정으로 인하여 왕조의 쇠퇴기로 접어든 시기였던 만큼 속가가 변형되어 궁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속된 불안은 속가를 더욱 음란하게 만들었으며, 대표적인 남녀상열지사 노래로 분류되는 <쌍화점>이 그 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저자가 문학사회학적인 접근방법론을 뛰어 넘으며 문학사를 기술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남게 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해에 출판된 우리어문학회의 『국문학사』에서는 『고려사』 악지(樂志)에 언급된 <정읍>의 내용에 대하여 『악학궤범』에 수록된 <정읍사>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학은 이렇다 할 작품은 볼 수 없고, (…중략…) 백제에는 정읍사가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를 보면, 정읍현(井邑縣) 사람이 행상을 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부인이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자기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부른 노래가 정읍사라 하였다. 이에 그 노래를 적으면 아래와 같다.¹⁵⁾

저자는 현존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백제의 문학 작품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악학궤범』에 수록된 <정읍사>가 『고려사』 악지에 언급된 <정읍>의 내용과 결부시켜 백제의 노래라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어문학회의 『국문학사』는 고문헌에 따른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정읍사>의 발생 시기를 기술하고 있다.

1949년 출판된 조운제의 『한국문학사』에는 <정읍사>를 무려 5번이나 언급할 만큼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백제의 시가라 하여 고려 이래(以來) 전하고 있는 정읍사¹⁶⁾’, ‘고려의 시가중(詩歌中)에는 백제의 것이라 하여 정읍사 1편(篇)이 있다¹⁷⁾’라며 기술하고 있다.

고려의 시가로서 오늘에 전하는 것은 동동, 쌍화점, 서경별곡, 청산별곡, 처용가, 만전춘, 이상곡(履霜曲), 정석가, 사모곡, 가시리, 정읍사와 전기(前記) 정과정곡이 있다. 이들은 그 작자와 저작년대(著作年代)가 모두 불명(不明)한 것으로, 말하자면 누가 지은지도 모르고 민간에 구전하여 오다가 후세에 국자(國字)가 발명되니 비로소 문자상(文字上)에 재현된 것이다.¹⁸⁾

14) 이명선,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조선문학사(朝鮮文學社), 1948. 재간 범우사, 1990. 115~116쪽.

15)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수로사, 1948. 12쪽.(원문에는 한자와 현대의 맞춤법과 다른 말로 기록되었으나 필자가 현대에 맞게 수정하여 실었다.)

16)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개제 재간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41쪽.

17)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개제 재간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84쪽.

18)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개제 재간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80쪽.

위의 발췌문에서 보이듯 고려시가로 <정읍사>는 현재까지 전해지지만 저작 시기를 알 수 없고, 작자 역시도 알 수 없이 민간에서 구전되어 왔다. 하지만 한글이 발명되면서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남겨지게 되었으므로 고려시가에 속하지만 적어도 고려시대 그 이전에 창작된 백제의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운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며 <정읍사>의 발생 시기를 단언하지 않는다.

형식은 6구체로 되어 있어 고려의 보통장가(普通長歌)와는 그 형식이 다르고, 정과정곡과 아울러 향가의 형식이 계통을 끝 것인 줄 믿으나, 이것이 과연 백제의 시가이나 운운하는 것은 갑자기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으며, 혹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으니, 여기에 고려시가를 하여도 큰 착오(錯誤)는 없을 것 같다.¹⁹⁾

문학 작품에 있어서 형식은 매우 중요한데, <정읍사>를 보면 6구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려의 장가와 다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향가로 구분하기에는 석연치 않으므로 고려시대의 노래가 아닌 백제시대의 노래로 분류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저자가 백제시대의 노래로 확실히 단정을 내리기에는 문학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단언하지는 않는 것이다.

1982년에 발행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정읍사>를 다시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소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읍사>가 실린 문헌은 1493년에 편찬된 <악학궤범>이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노래가 궁중악으로 불리어졌으므로 국문으로 표기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워낙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노래의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개변이 얼마나 이루어졌든 이 노래가 원래 백제시대의 것이고, 처음에는 백제의 민요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²⁰⁾

저자는 『악학궤범』에 <정읍사>가 서술되어 있음을 명시하며, 기술된 내력을 백제에서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전해졌기 때문에 노래의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형이 백제의 민요이기 때문에 백제의 가요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 북한의 서술 시각

북한의 시각에서 <정읍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 발간된 문학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책의 출판을 국가 차원에서 기획하고 발간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사상과 이념을 담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학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비하여 문학사는 매우 적게 간행되었으며, 그 책 안에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집약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북한에서는 <정읍사>에 대한 시대 구분을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처음 간행된 리응수의 『조선문학사』 1은 분단 이전에 안확이 말했던 문학사와는 다르게

19)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개제 재간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85쪽.

2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82, 118쪽.

<정읍사>를 통일신라시대의 노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래의 제작 년대는 원래 미상이나 전주(全州)라는 지명이 신라 35대 경덕왕대부터 발생한 점으로 보아서 통일 신라 이후의 작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가사에 나오는 ‘즌대’나 해제에 나오는 탁니수(托泥水)가 다 이 시기의 사회상과 관련된다. 곧 노래도 통일 신라 시대의 복잡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작품의 하나다.²¹⁾

리응수의 『조선문학사』 1에 따르면 <정읍사>는 노래의 제작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노래 속 단어와 사회상으로 미루어봤을 때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최초의 문학사인 『조선문학사』 1(1~14세기)이 출간된 지 3년째 되는 해인 1959년에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에서는 『조선문학통사』(상)을 펴내는데, 이 책에서는 <정읍사>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진보적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통을 밝히며, 특히 해방후에 조선 노동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의하여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성과와 그의 특성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지향으로 일관하였다. 그리하여 이 『조선문학통사』는 그 시대 구분에 있어서 일부 사료의 취급 및 문학 현상들의 분석 평가에 있어서 종래의 문학사적 저서들과 구별되는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²⁾

『조선문학통사』(상)의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정읍사>는 ‘새로운 성과와 그의 특성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저자의 의도에 적절한 작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읍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 ‘종래의 문학사적 저서들과 구별되는 자기 특성’을 찾기에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으로는 <정읍사>를 백제시대로 보는 정홍교의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과 김춘택의 『조선문학사』 I, 사회과학원 정홍교의 『조선문학사』 1이 있다. 1977년에 발간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에서는 <정읍사>를 삼국시기 구전 가요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정읍사》는 백제인민들속에서 불리우던 노래로서 《사모곡》과 함께 가사가 알려져있는 몇편되지 않는 삼국시기 구전가요중의 하나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정읍사》는 원래 전주에 속하는 고을인 정읍의 한 행상인의 안해가 장사를 떠나 오래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걱정하여 지은 노래인데 그 후 고려 속악에 편입되어 무고로서 연주되었다고 전하고있다. 노래는 전승되는 과정에 예술적으로 더욱 세련된것으로 보인다.²³⁾

여기에서는 <정읍사>를 백제인이 부르던 노래로 확인하며 배경을 전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상을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내용이지만 고려의 속악에 편입되면서 세련미가

21) 리응수, 『조선문학사1(1~14세기)』, 교육도서출판사, 1956, 196쪽.

22)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 121쪽.

2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55쪽.

더해졌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출판한 김춘택의 『조선문학사』 I²⁴⁾에서는 <정읍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읍사」는 백제 인민들 속에서 창조된 서정 가요이다. 이 가요는 「동동」과 함께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사』에 의하면 이 가요는 정읍 고을에 살던 한 행상인이 집을 나선 다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아내가 산 위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것이라고 한다.²⁵⁾

여기에서는 <정읍사>의 출처를 『악학궤범』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악학궤범』이 조선시대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뤄진 노래를 후세사람들이 조선의 노래로 인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사』의 서술된 서사를 통하여 정읍 고을에 살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부른 곡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연으로 인해 <정읍사>는 백제인이 창작한 서정가요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정홍교의 『조선문학사』 1 역시 <정읍사>를 백제시대의 노래로 보며 삼국시기 각 국가별 노래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고구려의 《명주》, 《연양》, 백제의 《정읍사》, 《선운산》, 《지리산》, 《서동요》, 신라의 《사모곡》, 《치술령곡》 등은 모두 삼국시기에 인정세대를 반영한 개인창작가요작품들이다.²⁶⁾

고구려에는 <명주>와 <연양>, 백제에는 <정읍사>·<선운산>·<지리산>·<서동요>, 신라에는 <사모곡>·<치술령곡>등의 노래가 있다고 기술하며 2곡밖에 언급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 백제의 노래는 삼국 중에서도 4곡이나 언급하였다. 이러한 작품 모두 인정세대를 반영한 개인 창작 가요라며 김춘택의 『조선문학사』 I 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노래로 볼 수 있는 의견을 의식한 듯 고려시기까지 불린 백제의 대표적인 가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요 《정읍사》는 창조된 이후 당대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고려시기에도 널리 불리워져 고려궁중음악에까지 인입되었던 백제의 대표적인 가요작품이다.²⁷⁾

<정읍사>는 개인의 창작가요지만 백제시대에 창작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퍼지게 되었고, 고려시대에까지 구전되어 나중에는 고려의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읍사>의 내력에 대한 설명은 백제인의 창작품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으므로 북한의 두 문학사에서는 <정읍사>를 모두 백제시대 노래로 서술하며 시대

24) 『조선문학사』 I 은 이례적으로 1995년도에 남한에서 재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교시가 부담스럽게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민정부로 들어서면서 이뤄진 쾌거라고 볼 수 있다.

25)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78쪽.

26)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3쪽.

27)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3쪽.

를 명확히 하고 있다.

III. <정읍사> 발생 시기에 대한 논쟁

1. 남한: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고려 혹은 백제의 노래로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정읍사>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초창기 문학사였던 이명선의 『조선문학사』(1948)에서는 유물사관적인 관점에 따라 <정읍사>를 고려시대로 보았다.²⁸⁾ 양주동²⁹⁾은 이 의견을 뒷받침하며 후강 부분에 나오는 ‘全州’을 전주(全州)라는 지명의 약어로 보고, 전주라는 지명이 경덕왕 16년에 개칭된 지명³⁰⁾이므로 신라 경덕왕 이후에 생긴 것이니 본 작품은 백제의 노래가 될 수 없다³¹⁾고 주장하며 <정읍사>를 고려시대의 노래로 귀속시켰다.³²⁾

『고려사』 열전(列傳) 이혼조(李混條)에는 ‘舞鼓 侍中李混謫宦寧海 乃得海上浮查 爲舞鼓 其聲宏壯’(무고는 시중 이혼이 영해-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에 귀양 갔을 때 바다에 떠있는 뗏목을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크고 장엄했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고려 이혼에 의한 작사설로 간주하기도 한다. 『양촌집』의 「영해부서문루기(寧海府西門樓記)」에서 권근이 무고정재를 이혼이 만들어 영해부만의 자랑³³⁾거리로 기술한 점은 <정읍사>가 고려시대 작품이라는 것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과 시대배경의 측면에서 <정읍사>를 음사(淫詞)로 해석하고 충렬왕 때의 음풍적인 시대 배경과 결합시켜 고려의 가요³⁴⁾로 보기도 한다. ‘즌덕’을 다른 여자(기생)를 나타내는 비유어로 보고 다른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까 두렵다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증거이다.³⁵⁾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출판된 우리어문학회의 『국문학사』는 이명선의 『조선문학사』와 다르게 <정읍사>에 대하여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당대의

28) 우리 고전문학부터 현대에 이르는 문학을 통시적으로 보면서도 그 가치적도를 유물사관적인 관점에서 고찰시켰다.(임헌영 평, 이명선,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조선문학사(朝鮮文學社), 1948. 재간 범우사, 1990. 7쪽.)

29) 양주동, 「고가전답의(古歌箋答疑) 상(上)」, 『학풍』, 을유문화사, 1949. 50쪽 : (비주(鄙注)는 ‘전(全)저재’를 ‘전주시’의 약칭으로 해(解)하였다. 그 이유는 『악지』 해제(解題)에 ‘정읍전주속현’이란 특기(特記)가 있는 점, 또 성어(成語)의 수례(數例)로 ‘광(廣)나루, 안시(安市)’ 두운적(頭韻的) 유례(類例)로 ‘두등실 덩디당 등이 있는 점. 따라서 비설(鄙說)에 의하면 <정읍사>는 나 경덕왕대 이후(羅景德王代以後) 구(舊)백제지방의 민요요 백제시대의 원요(原謠)는 아니다. 그런데 학계의 대부분은 비설(鄙說)과 다르게 문제(問題)의 ‘전(全)자(字)를 가사(歌詞)중에서 뽑아 단(單)히 ‘저재 내려신고요’로 하기가 일췌이다.’

30) 『삼국사기』 권36 잡지 5 지리 3에는 ‘전주는 원래 백제의 완산인데 진흥왕 16년에 州로 만들었고 26년에 州가 폐지되었다가 신문왕 5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였으며 경덕왕 16년에 전주로 개칭한 것이다’라고 나온다.

31) 양주동, 『여요전주(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39쪽.

32) 이 지명의 약칭을 보완하는 근거로는 김원행의 『미호집(美湖集)』에 ‘홍주(洪州)’의 약자가 ‘홍(洪)’으로 적힌 것을 예로 들었다.(김완진, 「고려가요의 물명: 국어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통권 7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5~7쪽.)

33) 임주탁, 「정읍의 창작시기」, 『한국시가연구』 1, 한국시가학회, 1997. 304~306쪽.

34) 지현영, 「정읍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4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1. 44~45쪽.

35) 하지만 이러한 퇴폐성이 충렬왕대(忠烈王代)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하며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노래로 규정을 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며 <정읍사>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역시도 노래의 창작 연대를 의심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실증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사고방식에서 서술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 정읍사가 백제 당대(當代)의 노래였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요새 볼 수 있는 가집중(歌集中)에 고구려의 을파소(乙巴素)와 백제의 성충(成忠)이 지었다는 시조가 각(各) 한 수식(首式) 전하나, 이는 믿을 수가 없다.³⁶⁾

1982년에 출판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도 <정읍사>를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규정하는데, <정읍사> 본문의 후강(後腔)³⁷⁾부분에 나오는 ‘全’이라는 한자 하나를 본문의 내용에 섞어 지명으로 보는 것을 무리로 보고 ‘全’을 후강의 뒤에 붙여 후강전(後腔全)으로 보며 노래의 생성 연대를 전주라는 지명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³⁸⁾는 의견은 이를 뒷받침해준다.³⁹⁾ 또한 정재(呈才)로서의 <무고>는 고려시대에 와서 창제되었고, 거기에 백제 가요인 <정읍>이 채택되어 <정읍> 정재가 아닌 <무고> 정재로 명명한 것이며⁴⁰⁾, 『삼국사기』 악지와 『고려사』 악지의 편차방식은 기록법(樂器·舞樂·歌詞·在來俗樂)이 동일하므로 백제속악 정읍을 인정해야 한다⁴¹⁾는 주장 역시도 <정읍사>를 백제시대의 노래로 보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다른 견해는 한중일의 망부석설화들을 예로 들며 그 형성연대가 오랜 지명 연기설화(地名緣起說話)이기 때문에 옛 설화를 배경으로 하는 <정읍사>도 형성시대를 올려서 백제시대로 봐도 무방⁴²⁾하다며 <정읍사>를 백제시대로 보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歌詞)로서의 <정읍>과 악곡으로서의 <정읍>을 구분하고 악곡은 고려시대 와서 <동동>을 수정 혹은 답습하였고, 가사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으며 “어기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도리” 등의 후렴구 첨가는 그 영향으로 비롯된 것⁴³⁾이라며 <정읍사>를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보는데 한몫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문학사를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읍사>의 창작시기를 규정하게 하였다.

하지만 위의 주장과 다르게 백제시대와 고려시대로 분류하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문학사가 있는데, 바로 1949년에 발간되어 1987년에 재간행한 조운제의 『한국문학사』다. 여기서 조운제는 <정읍사>의 창작 시기에 대하여 어느 한 시대로 확정지어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이 입국(立國)하자 고려의 가악(歌樂)에 대(對)하여는 대정리(大整理)를 감행(敢行)하였기 때문에 그 정리(整理)에 희생(犧牲)되지 않고 남은 것이라 한다면 조선의 입국정신(立

36)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수로사, 1948, 13쪽.

37) 전강(前腔), 후강(後腔), 소엽(小葉), 과편(過篇)은 모두 노래의 가락을 나타내는 음악상의 용어로 가사 자체가 원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38)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57~59쪽.

39) 물론 ‘후강전(後腔全)’이라는 편명(篇名)을 사용한 예가 없을 뿐 아니라 <정과정(鄭瓜亭)>의 전강(前腔)·중강(中腔)에 다 엽(葉)이 없는데도 ‘전(全)자’를 붙이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며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68, 205~206쪽.

40) 최정여, 「정읍사 재고」, 『계명논총』 3집, 계명대학교, 1967, 15~17쪽.

41) 최정여, 「정읍사 재고」, 『계명논총』 3집, 계명대학교, 1967, 12~14쪽.

42) 정병욱, 「망부석의 비곡: 정읍사」, 『자유문학』 5권 10호, 통권 43호, 자유문학자협회, 1960, 226쪽.

43) 양태순, 「고려속요에 있어서 악곡과 노래말의 변모양상」,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1984, 200~202쪽.

國精神)에 의(依)하여 다분히 개작이 되었으리라는 의심(疑心)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정리(整理)에 아무 관계(關係)됨도 없이 민간으로 유전(流傳)하였던 것도 있을 것이다.⁴⁴⁾

조운제는 백제 혹은 고려시대의 노래로 규정되는 <정읍사>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선의 노래로도 구분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밝힌다. 즉,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이자 고려의 노래이며, 조선의 노래라는 모든 시대로의 소급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러한 조운제의 서술은 <정읍사>가 시대귀속에 있어서 많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시대귀속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조운제의 서술 역시도 실증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문학사적 견해에서 내려진 결과로 보인다.

2. 북한: 고구려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통일신라에서 백제의 노래로

<정읍사>를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는 남북 문학사를 통틀어 북한에만 존재한다. 북한에서도 1956년에 출판된 『조선문학사』 1(1~14세기)만이 <정읍사>를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본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데, 리응수는 그 근거를 ‘전주’라는 지명에 착안하여 <정읍사>를 통일신라시대의 문학으로 보았다.⁴⁵⁾ <정읍사>에는 ‘전주’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지명이 신라 35대 경덕왕 때부터 등장하므로 통일신라시대로 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정읍사>의 가사에 등장하는 ‘즌대’와 ‘탁니수’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당나라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고려로 보고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통일신라는 골품제를 기반으로 한 귀족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수의 백성들을 착취에 시달리게 하였고, 그들의 사회는 혼란스러운 사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북한의 견해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을 통하여 <정읍사>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되는 ‘즌대’와 ‘탁니수’를 통일신라시대라는 국가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단어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통일신라시대에 대한 북한의 반감은 저자로 하여금 <정읍사>를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귀속시키게 하였다.

노래의 지역적 소속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 고문헌은 대개 이것을 백제 가요로 취급하나 경덕왕대 이후의 작품이라면 엄격하게 말해서 신라 가요다. 다만 이것이 백제구지(百濟舊地)의 노래인 것만큼 노래가 그 지방의 특색을 띠고 있었으리라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⁴⁶⁾

저자는 <정읍사>가 고문헌에 백제의 노래로 취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읍사>의 시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백제 옛 지역의 노래이므로 지방색을 띠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엄격하게 말해서 신라 가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제구지(百濟舊地)’의 노래라는 것은 통일신라의 삼국 통일 후 백제 유민들이 부르며 후백제를 거치면서도 계속하여 <정읍

44)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개제 재간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80쪽.

45) 남한의 양주동도 <정읍사>에 등장하는 ‘전주’라는 지명에 주목하였지만 그 지명을 근거로 시대 구분을 고려시대로 하였다.

46) 리응수, 『조선문학사1(1~14세기)』, 교육도서출판사, 1956, 196쪽.

사>가 불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사>는 엄밀히 말하여 통일신라시대의 노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정읍사>를 모두 백제의 노래라고 규정하는데, 이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고구려 중심주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구려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북한의 의견이다. 북한은 예로부터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남한과 서로 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과거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때 광활한 영토를 자랑했던 고구려는 북한이 정통성을 내세우기에 적합한 국가였다.⁴⁷⁾ 이러한 고구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이미 김일성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김정일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구려는 넓은 령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으며 고구려인민들은 매우 용감하고 애국심이 강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강대성과 높은 문화수준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⁴⁸⁾

과거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나라가 제일 강하였던 때는 고구려시기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동방의 대강국으로서 위력을 떨치었으며 동방문화의 개화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⁴⁹⁾

북한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굳건한 국력을 자랑했던 고구려는 한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자 목표였다. 이러한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구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문학사에서도 발현되었다.

삼국 시기에 여러 봉건 국가가 있었지만 세나라의 문화는 서로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옛문헌들에 기록되어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의 언어는 부여와 고조선의 언어와 같았으며 신라와 백제의 언어는 고구려의 언어와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갈라져나온 나라였으며 백제나 신라가 진국의 삼한 땅에서 일어났고 진국의 문화를 계승한 사정과 관련되어있다.⁵⁰⁾

한반도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언어와 고구려의 언어가 서로 같았음을 내세워 고구려의 언어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제·신라는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북한 문학사의 견해다.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이 다스렸던 고조선의 정통성이 고구려로 이어지고,

4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는 고구려에 대하여 “고구려는 427년에 수도를 죽안으로부터 평양(오늘의 평양시 대성구역일대)으로 옮기었고 586년에는 장안성(오늘의 평양시 중구역, 외성구역, 평천구역 일대)으로 옮기었는데 그 둘레는 무려 40리에 이르렀다. 당시 세계적인 대도시로 꾸려진 평양의 광대한 규모와 웅장한 건축술은 아세아의 강국으로서의 고구려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하며 평양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30쪽.)

48) 김정일, 『김정일전집』 8,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234쪽.

49) 김일성, 『김일성전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88쪽.

50)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32~33쪽.

이러한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한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은 이렇게 문학사에서 드러난다.

『조선문학사』 I에서는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단일한 민족 문화가 다양한 형식으로 풍부하게 발전한 것’⁵¹⁾이라며 모든 문화의 중심을 고구려로 보고 있다. 백제를 ‘기원 1세기 중엽에 성립된 봉건 국가로서 국가 형성 초기부터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⁵²⁾고 평가하면서 고구려 영향 아래 발전한 나라로 보고 있다. 고구려는 ‘7세기 중엽에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였으며, 남쪽에 자리 잡은 백제와 신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⁵³⁾, ‘세 나라 시기’⁵⁴⁾에는 고구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가 매우 발전하였다’⁵⁵⁾고 기술함으로써 고구려가 강대국이었던 만큼 신라와 백제에게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며 경제와 문화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한다.⁵⁶⁾ 이러한 서술은 뒤에 백제의 <정읍사>가 고구려의 <동동>을 변개(變改)하여 습용(襲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⁵⁷⁾

『조선문학사』 I에서는 <동동>과 <정읍사>를 인민가요라 칭하며 함께 묶어 한 파트를 할애할 만큼 그 비중이 높는데, 이는 철저한 고구려 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북한의 문학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비춰진다. 고구려의 가요로 보는 <동동>과 이에 영향을 받은 <정읍사>는 모두 ‘서정적 주인공’⁵⁸⁾이 등장하며, 이 주인공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 당시 인민들의 민족적 정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사는 함께 엮어 논하기에 알맞은, 모두 인민을 위한 가요였던 것이다.

<정읍사>의 매 절에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다리”와 같은 후렴구에 대해서는 ‘시적 정서를 돋구어 주는 동시에 기복을 조성’⁵⁹⁾한다며 칭찬과 함께 고구려 인민들 속에서 쓰이던 후렴구 조성의 경험(<동동>의 “아으 동동다리”)이 창조 및 발전된 것이라고 풀이한다.⁶⁰⁾

51)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48쪽.

52)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47쪽.

53)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47쪽.

54) 남한에서 ‘삼국 시대’로 지칭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북한에서 ‘세 나라 시기’로 표기하는 것은 한자어를 최대한 줄이고 고유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언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55)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48쪽.

56) 하지만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서는 ‘신라 봉건 통치배들은 봉건적 착취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이어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인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였다’(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48쪽.)고 함으로써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57) 북한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동동>을 고려의 노래로 보았지만, 문학 분야까지 주체사상이 확고히 정착된 80년대부터는 고구려의 노래로 시대를 소급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주체사상이 70년대에 등장하였지만 제6차 당대회가 1980년 10월에 열리면서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문학 분야에 문자화되어 스며든 것은 80년대로 추정된다.)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동동>의 창작 시기
리응수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	고려
정홍교	조선문학사	과학백과출판사	1977	고려
김춘택	조선문학사	김일성종합대학	1982	고구려
정홍교	조선문학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고구려

58)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78쪽, 79쪽.

59)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79쪽.

60) 북한의 이러한 문학적 시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오희복, 『고구려문학유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199쪽: 고구려인민가요인 《동동》에 리용된 감동사 《아으》는 백제가요인 《정읍사》에도 쓰이었고 후기신라시기의 가요인 《처용가》에도 쓰이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인민가요

이러한 고구려에 대한 감정이입은 김춘택의 『조선문학사』 I에서 <동동>을 고구려의 노래로 규정하게 하였으며, 백제의 노래 <정읍사>의 후렴구가 인민들 사이에서 문화 전파를 통하여 <동동>의 후렴구와 유사하게 발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고구려의 인민가요에 쓰인 감동사가 백제나 후기신라에서 그대로 리용되었다는것은 고구려인민가요의 강한 영향력을 말해주는 동시에 당시 세나라인민들의 생활감정, 미학정서적느낌이 같았다는것을 의미한다.⁶¹⁾

우리는 문학사연구를 심화시켜 민족의 넘과 향취가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학예술유산을 더 많이 찾아내어 정리함으로써 우수한 민족성을 꽃피워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⁶²⁾

북한은 우수한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학을 도구로 활용하였고, 이를 위해서 문학사연구에 몰두해야 하며 문학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한다. <동동>은 이러한 문학적 요구에 따라 고려시대의 노래에서 고구려시대의 노래로 시대가 소급되었으며, <동동>과 후렴구가 유사한 <정읍사>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노래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위상

<정읍사>는 분단 이전 안확의 『조선문학사』에서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보았다면, 북한에서 리응수의 『조선문학사』에서는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사회과학원의 『조선문학사』와 김춘택의 『조선문학사』, 정홍교의 『조선문학사』에서는 다시 백제시대의 노래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동동>의 시대 구분을 고구려로 소급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해석이었다고 본다. 또한 자력의 힘으로 통일을 하지 못한 통일신라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시대귀속 문제는 백제로 소급하는데 한 몫을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노래로 보는 <동동>의 감탄사 ‘아으’가 백제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고구려 중심주의의 수단으로 <정읍사>를 백제의 노래로 규정한다. 이는 사상적 논의에 따라 시대귀속이 변경된 것으로 통일 이후 남한의 문학적 시각과 충돌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남한의 우리어문학회는 『악학궤범』에 백제의 노래 <정읍사>가 수록되어 있다고 밝히며 <정읍사>를 백제의 노래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고려사』 악지(樂志)에 언급된 노래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백제에는 정읍사가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를 보면, 정읍현(井邑縣) 사람이 행상을 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부인이 산에 올라가서 멀리

에 쓰인 감동사를 백제나 후기신라에서도 리용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61) 오희복, 『고구려문학유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199쪽.

62) 은종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유산을 찬연히 빛내여주시는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 제62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6쪽.

바라보며 자기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부른 노래가 정읍사라 하였다. 이에 그 노래를 적으면 아래와 같다.⁶³⁾

여기에서는 <정읍사>가 지어졌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정읍사>의 창작 배경을 단순히 행상을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남편의 모습이 잘 보일 수 있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어두운 밤길에 무탈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해석은 <정읍사>를 망부가적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 남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읍사>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1년에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하고 정홍교가 저술한 『조선문학사』 1은 <정읍사>를 사회비판적 성격의 작품으로 해석하며 현재 북한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망부가적 시각을 사장시키고 <정읍사>를 사회비판적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망부가적 견해에 사회비판적 시각을 더하여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문학사는 김일성의 교시가 굵은 글씨로 자주 언급되면서 <정읍사>가 서술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교시가 곳곳에 언급될 만큼 주체사상 아래 철저히 집필된 이 문학사는 <정읍사>의 창작 경위와 원문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안해의 애타는 심정, 절절한 사랑의 심정은 단순한 부부간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재난과 불행의 위협을 받으며 사회의 압박 속에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다.⁶⁴⁾

정홍교는 <정읍사>의 보편적 해석에 덧붙여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타는 심정을 통해 그들이 사회의 압박 및 재난과 불행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선조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간접적으로 설명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과거 착취사회에서 아무런 국가적,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안겨준 보금자리는 오로지 그들의 가정이었다. 더군다나 어머니와 안해들은 가정의 기둥인 남편에 의지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였고 안정된 생활을 넘원하였다.⁶⁵⁾

저자는 과거를 ‘착취 사회’라고 단정하면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보금자리는 그저 가정밖에 없었다고 말한다.⁶⁶⁾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에서 안락한 삶을 누

63)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수로사, 1948, 12쪽.(원문에는 한자와 현대의 맞춤법과 다른 말로 기록되었으나 필자가 현대에 맞게 수정하여 실었다.)

64)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5쪽.

65)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5쪽.

66) 김정일은 과거 사회에 처했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 대중은 오래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25쪽.)

릴 수 있기 때문에 <정읍사>는 북한 사회에 대한 우월함을 기술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현재는 고구려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는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의 실현으로 말하며 시대가 문학에게 요구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날의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지난날의 민족문학예술유산계승에서 역사주의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개개의 유산을 해당 시기의 사회력사적조건과의 련관속에서 공정하게 분석평가하고 다룬다는것을 말하며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⁶⁷⁾

정홍교는 『주체문학론』에서 말하는 현대성의 원칙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우수성 과시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읍사>를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극명하게 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상을 착취와 방임의 이미지로 진단하였다. 과거는 봉건체제 아래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착취계급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사회였으므로 <정읍사>를 체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시각 속에서 남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한은 <정읍사>를 망부가적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의 시각에 사회비판적 성격을 더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학사에서 북한은 지나친 주체문학론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고 소거한다면 <정읍사>에 대한 남과 북의 시대 귀속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읍사>는 남한 내에서도 시대 귀속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논란이 있으며, 북한 역시도 여러 시대로의 귀속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서로의 문학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작업을 통하여 남북이 접점을 찾는다면 통일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V. 결론

남과 북의 문학사에서 <정읍사>는 빠지지 않고 대부분 언급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백제의 노래 중 유일하게 가사가 전해진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는 더욱 높다. 하지만 남과 북은 각자의 시각으로 <정읍사>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망부가적 성격을 바탕에 두고 해석한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본 문학사 연구는 <정읍사>를 분단 이전에 백제시대의 가요로 규정한 것이 분단 후에는 서로 다른 시대를 제시하였지만, 80년대 들어서 남북의 문학사 모두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규정하며 외형적인 접점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정읍사> 시대 귀속 문제가 ‘고구려 중심주의’로 인하여 변하게 된 연유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문학사를

67)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0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상황과 주장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백제에서 부른 노래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고려시대에 궁중에서까지 향유하게 되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훈민정음으로 『악학궤범』에 문자화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작품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이처럼 그 합일점을 찾아낸다면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문학사는 우리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남한 내에서도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정읍사>를 통하여 북한의 학문성과를 검토하고 통일문학사 기술 가능성을 제시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1984년 평양에서 발간된 현종호의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에서는 <정읍사>의 창작연대를 어느 시기의 작품이라는 것은 딱히 알 길이 없다고 서술⁶⁸⁾했듯이 <정읍사>의 창작연대는 시대를 규정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는 현재 남한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논의되면서 한국 문학 전반에 걸쳐 재편성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읍사> 역시도 합의를 하여 마땅히 시대 귀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8) 현종호,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84, 95쪽.

참고문헌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상), 1959.
- 김명자, 「동동」,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박이정, 2015.
- 김성수, 「통일 담론과 남북한 문학사 소통방안」, 『민족문학사연구』 56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 김영, 「통일을 대비한 한국문학사 서술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제130호, 국어국문학회, 2002.
- 김완진, 「고려가요의 물명: 국어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통권 7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김일성, 『김일성전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김정일전집』 8,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김종근, 「통일문학사에서의 소설의 기원 문제」, 『겨레어문학』 제28집, 겨레어문학회, 2002.
- 김종희, 「한민족 문학사의 통시적 연구와 기술의 방향성」, 『외국문학연구』, 한국의국어대하외국문학연구소, 2014.
-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68.
- 리응수, 『조선문학사1(1~14세기)』, 교육도서출판사, 1956.
- 박은경, 「남북한 국문학사 비교 연구: 『한국문학통사』와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설성경·김영민,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제2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 성현, 『악학궤범』 권5, 1493. 고전간행회 영인본, 1933.
-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겨레어문학』 제27집, 겨레어문학회, 2001.
-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양주동, 「고가전답의(古歌箋答疑) 상(上)」, 『학풍』, 을유문화사, 1949.
- 양주동, 『여요전주(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 양태순, 「고려속요에 있어서 악곡과 노래말의 변모양상」,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1984.
- 오희복, 『고구려문학유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수로사, 1948.
- 은종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유산을 찬연히 빛내여주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 제62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 이명선,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조선문학사(朝鮮文學社), 1948. 재간 범우사, 1990.
-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 이영미, 「남북한 통일문학사 기술의 과제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50집, 한중인문학회, 2016.
- 임주탁, 「정읍의 창작시기」, 『한국시가연구』 1, 한국시가학회, 1997.

- 정병욱, 「망부석의 비곡: 정읍사」, 『자유문학』 5권 10호, 통권 43호, 자유문학자협회, 1960.
-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조규익, 「북한문학사와 상고시가」, 『동방학』 제32호, 동방학회, 201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82.
- 지현영, 「정읍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4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1.
- 최정여, 「정읍사 재고」, 『계명논총』 3집, 계명대학교, 1967.
- 풍영순, 「통일문학사에서 소설의 기점과 중국문학 수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현종호,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84.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시대 귀속 문제」에 대한 토론문

김정아(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원)

이 글은 남북문학사에서 남과 북의 연구업적들을 기반으로 통일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현대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통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고전문학에서, 특히 가사가 전해져오는 가장 오래된 고전시가인 <정읍사>의 시대귀속을 소재로 통일문학사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남북의 주요 『문학사』의 변천과정을 시기별, 저자별로 분류하여 검토하면서 <정읍사>의 내용과 시대귀속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정읍사>의 주제와 제작시기를 남북 모두 공식적으로는 ‘망부가의 노래’인 백제가요로 분류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학자들간 시대귀속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주체문학론』에 기반한 고구려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제작시기가 통일신라시대에서 백제로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문학사를 서술할 때 남북이 각각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각각 변화과정을 겪어왔듯이 남과 북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열린 시각으로 서로의 의견에 귀기울인다면 통일문학사 서술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통일문학사’를 구성해가는 사례로 <정읍사>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70여년간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에서 살아온 남북이 공통성을 찾아가는 길에 고전시가문학으로 통일문학사를 여는 것은, 분단이전에 만들어진 남북 공동의 민족문화유산이라 현대문학에 비해 해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음악적 요소가 있어 사람들에게 친근한 시가문학 중 백제의 것이라고 유일하게 전해지는 <정읍사>를 선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읍사>는 남한에서는 7차 『문학』 교과서 18종 중 10종에 실려 있고, 북한의 경우도 북한 문학 교과서 『고등중학교 4』에 청산별곡과 함께 중세시가문학으로 실려 있어 남북민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백제가요로 남북의 공통성을 찾아가는 소재로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통일문학사를 위한 연구자들의 성과가 많이 존재하나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에서, 남북 공통으로 교과서에서 실려 있고, 가장 오랜 시가문학인 <정읍사>의 남북의 연구업적을 문학사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내부적인 논의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남북이 함께 공통성을 찾아 상호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성과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정읍사>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자면 연구의 시각도 ‘통일문학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향후 ‘통일문학사’의 관점에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작품의 내용이나 시기 해석을 할 때 남북의 이념적,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해석은 차이만을 부각하고, 부정적 한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남과 북 모두 시기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도 열려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기초로 ‘통일문학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의 실증적 접근에 의한 ‘신뢰적 안정성’에 북한의 『주체문학론』에 의한 ‘현재성’과 ‘인민성’을 보완하여 접근한다면 고전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남북민의 관심도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문화로 변환할 수 있는 민족문화콘텐츠로서 충분한 활용도 가능해지므로, ‘통일문학사’적 관점으로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작품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공통의 현대적 가치를 찾아 통합으로 나아간다면 통일문학사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릴 것이다.

상호접촉에 의한 남한 근로자의 시선 변화: 개성공단 사례

임지훈(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목차 -

- 1장 들어가며
- 2장 이질적인 두 문화의 결합 환경: 개성공단
 - 1. 개성공단의 연구동향
 - 2. 경영주체와 인력관리주체의 이질성
- 3장 개성공단에서 남한 근로자의 상호접촉경험
 - 1. 근무 이전
 - 2. 근무 초기
 - 3. 남북 근로자간 관계 형성 이후
- 4장 독립적인 상호협력의 주체로의 재인식
 - 1. 분단환경에서 분리된 독립주체
 - 2. 남북경협외 견인자로서 남북근로자의 역할재고
- 5장 나가며

1장 들어가며

개성공단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기초하여 조성한 남북경협의 산실이었다.¹⁾ 남북기본합의서 조인 이후로 남북경협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당시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민간교류활성화 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로 1차 북핵 위기와 남한의 정치변동에 따른 남북협상의 경색에 따라 실제 결실을 맺지 못했다.²⁾ 이후 남북경협은 1998년 금강산관광부터 본격화했다. 그리고 2000년대 개성 남쪽 외곽지대가 최종적인 남북경협부지로 확정되었다.³⁾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까지 11년 동안 남북경협의 산실로 불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위키백과』([검색: 2017년 3월 15일]); <https://ko.wikisource.org/wiki/>

2) 신정현은 『노태우·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석사학위논문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과정에서의 남북관계 변화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① ‘국제환경’(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관계 수준, 국제환경 및 체계), ② ‘국내정치’(정부여당 및 정치적 역학관계, 여론 및 시민사회 운동 수준, 레임덕), ③ ‘정책결정자’(최고 지도자의 신념과 의지, 대북인식, 핵심참모의 성향). 7.7 선언으로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맞물리면서 급진전을 보았지만 1990년 ‘3당 합당’ 후 정개편을 통한 여당의 정국장악 이후론 공안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민간교류의 길이 막혔다. 여기에 북핵 위기로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파행을 걸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정현, 『노태우·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 17~31 참조.

3) “1999년 9월 현대가 만든 ‘공단개발사업계획’에는 공단개발 예정지로 ‘황해남도 해주만 남쪽 강령

려왔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란 거대 담론의 하위주제로 다루어졌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평화의 상징 또는 북한의 핵 실험자금의 원흉이란 극단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개성공단의 운영과정과 다른 남북경협이 부침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성공단의 구성환경과 남북 근로자의 접촉과정을 통한 상호변화에 주목한다. 개성공단의 근본 취지인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조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본고는 남북 근로자의 상호접촉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법인 장을 중심으로 구술면접을 진행하고 이러한 자료를 1차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관련하는 신문 및 수기 자료와 관련 2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 이질적인 두 문화의 결합 환경: 개성공단

1. 개성공단의 연구동향

1) 개성공단 운영과정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본체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다. 전부터 북한은 1980년대 ‘합영법’을 제정, 외자를 유치하려 했다. 1980년대에는 주로 일본 조총련계 기업투자정도만 이루어졌는데 자주노선에 따른 폐쇄적인 경제인식이 외자유치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⁴⁾ 탈냉전 시기에 UNDP는 두만강개발 프로젝트를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에 제안했다. 핵심은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경협이 확대였다.⁵⁾ 그러나 1992년 NPT탈퇴에 이른 ‘1차 북핵위기’ 등의 북미간의 경색국면과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한 북한 내부 상황의 악화 등으로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00년대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처음으로 신설했다. 중국인인 양빈을 초대 시장으로 내정했으나 신의주의 지리적 한계와 양빈의 중국에 의한 체포로 더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여파로 개성공단 조성에 시일이 늦어지면서 북한관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⁶⁾

군 일대’라고 못 박고 있다. 당시에도 2,000만 평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명기했고, 8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세워 놓았다. 당시 북쪽에 제시된 해주공단 개발의 비전은 세계시장 수출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임을출,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서울: 해남, 2005), p. 7. 그러나 반면 북한은 신의주를 원했다. 최종적으로 절충안으로 개성이 결정되는데 있어서는 중국의 권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임을출, 『위의 책』, p. 16.

- 4) “북한이 합영 사업을 통하여 얻으려고 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기술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경영방식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당이 합영기업의 관리를 장악하여 ‘자본주의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379.
- 5) “북한은 서방의 자본·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1995년부터는 별도의 대내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시대 내에서의 특혜적인 투자우대정책 실시와 함께 자본주의적인 경영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양문수, 『위의 책』, p. 381.
- 6) “주동찬 총국장은 생산기념식 직전 사전 간담회부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 총국장은 ‘100만 평을 떼어 줬는데 아직까지 한 개밖에 건설되지 않았다’라면 속도가 더디다며 고개를 외로 돌렸고 정 장관의 측사 중간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다. … 북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으나 남측 정부 역시 전략물자 반출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경수, 「현장 동행

개성공단은 본격적인 시범단지의 운영이 2005년에 시작되었다. 시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후발업체의 입주가 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7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2007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서 2단계 단지개발도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이 시기는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⁷⁾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형태를 보였다. 신규설비는 중단되었고, 기존의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신규업체의 진입은 불하했고, 사실상 기존 업체는 운영유지로 돌아섰다. 이와 더불어 2009년 현대아산 유 모 씨 억류사태 등 개성공단에서도 남북 당국 간의 갈등이 커졌다. 북한은 점차 벌금을 과도하게 적용했으며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협력관계도 갈등과 긴장상황이 지속되었다.

2) 남북관계 변화에 연동된 연구경향

개성공단 연구는 남북관계와 연동하여 개성공단의 운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했다. 2005년 ~ 2007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때 개성공단 역시 활발한 운영을 보였다. 이 시기 개성공단연구는 대체로 남북관계와 향후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했다. 임을출을 비롯한 여러 관련 연구들은 일종의 남북경협 모델로서 개성공단의 효용에 중점을 두었다.⁸⁾ 한편 운영남북체제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관련한 연구도 진행했다. 박천조는 개성공단에서의 노사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 운영방식과 사회주의 노동정책의 이중적 결합에 따른 노사갈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⁹⁾

2008년 8월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개성공단운영도 축소되었다. 기존 운영인력 일부가 철수했으며 2009년 현대아산 유 모 씨 억류사태로 개성공단 역시 운영이 경색되었다. 이 시기 개성공단연구는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또는 향후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규석의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1988년 이후 2010년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남북경협 속 개성공단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장기석의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행정법위반 형사사건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과 같이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의 법제적 문제 등 다방면의 성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¹⁰⁾

취재: 개성공단 첫 제품 나오던 날- 남북 뚜렷한 온도차 속 'made in 개성' 시대 열다, 민족21 편집 부, 『민족 21』, Vol. 46, 민족21, 2005, p. 23.

7) 이러한 기준은 김진향 교수의 주장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기존 계획은 모두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은 한 발짝도 못나간다’는 ‘비핵개방 3000’ 원칙을 천명하면서 기본적 개성공단 관련 남북합의들을 대부분 무시-부정해버렸다. 결국 개성공단은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비정상적 상태로 들어간다.” 김진향,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 사람들』(전북: 내일을 여는 책, 2015), p. 47. 자세한 분류는 p. 44-45의 ‘<개성공단 역사>’를 참고할 것.

8) 임을출,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서울: 해남, 2005);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규석,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2, No1, 2011; 이일영,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경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V30, 2016; 참조.

9)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産業關係研究』, Vol25, No4, 2015; 강연미,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개성공단 경제특구의 작업장 문화」,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3, 2013.

10) 장기석,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행정법위반 형사사건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統一과 法

2013년 개성공단의 1차 폐쇄 이후 개성공단의 운영전반의 평가와 진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폐쇄원인을 북한의 핵개발로 상정하고 핵개발을 위한 통치 자금줄이 상납되는 곳으로 개성공단을 지목하고 있다.¹¹⁾ 장용훈은 개성공단의 2016년 2차 폐쇄조치로 남북관계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대결구도로 돌아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저자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이 대북제재의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더 큰 안보적 위협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진단한다.¹²⁾

최근에는 보다 본격적인 개성공단의 성격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김진향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 사람들』에서 저자 본인의 실제 개성공단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내부의 남북 근로자 간의 다양한 접촉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¹³⁾ 특히 그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남북교류의 분수령이 되었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을 경계로 ‘정상화’와 ‘비정상’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은 단순히 북한의 일방적 책임이 아닌 남한의 일방적인 운영 축소 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음을 주장한다. 이우영의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간의 접촉사례를 통해 남북 근로자간의 상호접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연구했다.¹⁴⁾

개성공단에 대한 그 간의 연구동향은 대체적으로 남북관계의 하위주체로서 다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변화 속에서 유독 개성공단만이 오랫동안 유지된 요인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김진향과 이우영 등 최근 본격적인 개성공단의 현황연구는 오랫동안 운영을 유지한 개성공단의 가치와 운영과정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잘 드러낸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개성‘공단’ 자체의 환경적 특징과 ‘근로자’란 제한적인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운영구조와 운영주체인 남북 근로자의 문화가 접촉과정에서 갈등 및 해소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경영주체와 인력관리주체의 이질성

1) 북한: ‘국가-노동자’ 중심의 근로문화

북한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경제시스템을 급속히 정비하면서 노동 중심의 생산 정책을 펼쳤다. 북한은 생산구조에 있어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생산 공정별, 생산품목별로 직장”이 조직된다.¹⁵⁾ 이 직장 중심으로 다시 “여러 작업반으로, 작업반은 다시 분조”로 나뉜다.¹⁶⁾ 한편 북한의 공장기업소 관리체계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행정과 당 부분으로 이원화되어있다.¹⁷⁾ 기업운영과 노동자의 의견은 모두 ‘공장장위원회’에서 집단지도체제로

律』, No. 1, 2010;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자료, 『현안과 과제 : 개성공단 확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남북경협 성공모델로 정착해야』, 현대경제연구원, Vol. 125, 2012; 유창근, 「남북 경제협력 현장을 가다 2: 개성공단 공장 짓는 현장 감독도 못해」, 통일한국, Vol.293, 평화문제연구소, 2008.

11) 이동훈, 「[특별기획: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인터뷰: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만 북한 주민 생계수단 사라져 충격 클 것」, 『통일한국』, Vol. 387, 2016, p. 40.

12) 장용훈, 「[특별기획: 긴급진단]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제로시대」, 『통일한국』, Vol. 387, 2016.

13) 김진향,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 사람들』(전북: 내일을 여는 책, 2015)

14) 이우영, 구갑우, 양문수, 윤철기, 이수정,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6)

15)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 33.

16) 박천조, 『위의 책』, p. 33.

운영된다.¹⁸⁾ 당은 공장당위원회를 통해 당의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서 사실상 공장기업소는 당에 종속된 특징을 보인다.¹⁹⁾

공장에서 실질적인 작업 단위는 작업반이 되며 작업반장은 작업반의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²⁰⁾ 북한의 경영관리는 당이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지배인과 당 조직의 집단합의운영체제이다. 공장기업소 지배인은 역할이 매우 축소되어 있다. 지배인은 당에 의해 철저히 예속된 특징을 지닌다. 생산의 결정과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의 주체는 당이다. 표면적으로 당은 노동자인 인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정당성을 갖는다. 공장생산 운영결정은 각 공장기업소의 지배인이나 현장 작업반장이 아닌 당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지배인과 노동자의 관계는 수평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2) 남한: ‘경영자-노동자’ 중심의 근로문화

경제 성장기에 군부독재정권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종의 ‘군사문화’로 전국을 일사분란하게 기획·통제했다. 1972년 유신체제의 시작으로 이전에 비해 국가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을 위해 근로자의 노사활동을 규제했다. 이는 기업가의 근로자의 임금 동결과 노동력착취로 이어졌다. 남한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영자’ 중심의 생산구조를 정착시켰다.

작업장은 대량생산체계에 따라 생산공정라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공정별로 배치된다. 작업장의 근로자는 오로지 작업공정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임금을 배분하는 일은 경영진이 맡는다. 노사의 구분이 분명하며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박탈당했다. 민주화 이후 노동인권요구가 거세지면서 노사협상이 이루어지지만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사측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영에 대한 노조의 급진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강력한 노동운동의 탄압과 동시에 ‘건전노사관계’등을 내세워 노동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²¹⁾ ‘가족경영’을 내세우며 정권과 경제계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권향상과 임금의 현실화를 펼쳤다. 또한 분단과정에서의 좌익의 노동분쟁 등의 사례로 노동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아있다. 노동자의 인식 역시 여전히 낮아 경영진을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블루 칼라’로 호칭한다. 또한 대체로 노동자들의 평균 학력수준은 경영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17) 이동명, 「북한 기업의 작업조직」,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파주: 한울, 2007), p. 128.

18) “공장당위원회는 당의 경제 과업을 생산자 대중들에게 주지시키고, 위원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생산자 대중들과 토의하게 하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공장당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계획의 작성, 확정된 계획의 실행 방안, 계획 수행의 평가 등 계획화 과정의 모든 과정도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토론을 거치도록 하였다.” 최종태,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 40.

19) 이동명, 『앞의 책』, p. 141.

20) 조정아, 「북한의 노동장 문화와 노동자 정체성: 노동통제와 작업동의를 중심으로」,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파주: 한울, 2007), p. 246~247.

21) “요컨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변화된 노사관계 지형에서도 자본의 대노동 전략은 여전히 ‘배제’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렀으며 다만 그 현상 형태가 억압적인 것에서 헤게모니적인 것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할 수 있다.” 강수돌, 『노사관계와 삶의 질』(서울: 한울, 2002), p. 67.

3장 개성공단에서 남한 근로자의 상호접촉경험

1. 근무 이전

1)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성공단 이전, 남한 근로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분단체제 하의 전형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북한은 남한과 체제가 다르며 북한인민은 남한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에서 살고 있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힘이 아닐까? 어릴 때부터 반공 하면서 계속 북측에서 넘어 오는 게 있었고, 아무래도 무장공비도 몇 번 있었고 그런걸 보면서 당연히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전쟁도 그렇고 어찌면 전쟁이 제일 크다. 그걸 근데 재미있는 건 북측에선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 그건 내가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제 그런 거, 전쟁이 그렇고 우리 쪽을 건디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두렵지 않을까...²²⁾

남한근로자 역시 분단구조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학교나 사회의 교육 및 통념에 따라 대체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선입견은 북한체제에 뿐 아니라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대체로 개성공단 근무 과정에서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유사한 시선으로 이어진다.

애네 는 일은 뒷전이고 애네들의 임무는 체제를 허물어트리지 않는 거에 진짜 온 심혈을 기울여져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우리 남측으로 이야기하면 노조위원장 뭐 이런 정도의 성격이 되겠다. 그 친구들의 임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선 트집을 잡아선 한 번 또 좀 이렇게 좀 야 이건 진짜 남측에선 아무것도 아니겠다.²³⁾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남한근로자들은 북한 근로자와의 차이 그 자체를 존중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를 바라보는 잣대엔 여전히 북한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위의 구술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남북 상호의 이질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은연중에 남한을 북한보다 절대적으로 우위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

2) 북한 근로문화에 대한 인식

개성공단 근무 이전의 근무자들은 북한 근로문화에 대체로 무지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 대중에게 북한은 매우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접근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일반적인 생활상은 일부 매체에서 방영하는 탈북 민들의 구술에 사실상 의존하

22) 2016년 8월 19일 녹취

23) 2017년 7월 12일 녹취

게 된다. 그 조차 대부분 함경도 지역의 일부만이 노출되기에 북한 전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근무자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북한 근로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대체로 전무한 편이다.

아니 그런 거는 없었다. 그런 경험은 없었고, 우리가 개성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관심 있는 쪽에 귀가 기울어진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전에는 물론 북한이 있는 알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건엔 그런 게 없었다.²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남한에서의 고정적인 선입견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은 대체로 같은 민족이자 동시에 주적이란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근무 초기 남한 근로자 역시 남한 국민들과 유사한 이중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 생각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거라 생각한다. 강압적이다. 그 두려움의 존재다. 처음에 딱 갔을 때에는 우선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깐 아무래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좀 크다. 두려움이 좀 더 크고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활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게 있으니깐? 그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 해도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쌍한 면도 없잖아 있다. 인간적으로. 그 정도.²⁵⁾

같은 민족이 우리가 틀린 게 뭐가 있겠는가? 다만 체제가 틀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동료애 만들 는... 그치만 그 친구들도 더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애뜻함이 남는 곳이 개성공단이겠다. 그런데 이제 과연 민족에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틀려서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했을 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쉽게 또 대화가 일단 되기 때문에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거다.²⁶⁾

개성공단 초기 남한근로자들은 북한에 대한 편중적인 인식에 의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사전교육에서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²⁷⁾ 북한의 근로자들도 유사한 교육을 받고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⁸⁾ 이러한 남북 근로자들의 상호에 대한 이해는 종종 상호간의 갈등

24) 2017년 7월 12일 녹취

25) 2016년 8월 19일 녹취

26) 2017년 7월 12일 녹취

27) “개성공단에 처음 들어갈 때 정부의 안보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죠. 솔직히 거부반응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보통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근로자들 모습이 영 안 되어 보였어요. 영양상태도 안 좋은 것 같았구요.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박성철 과장, 「개성에 있으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었다」, 김진향,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 사람들』(전북: 내일을 여는 책, 2015), p. 93.

28) “북측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 오면 내부교육을 받는다고 남측 주재원들에게 들었는데, 교육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남측 주재원들은 엘리트이며 상당히 잘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재원 중에는 심지어 스파이도 있으며, 주재원들이 북측 근로자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일종의 전술이니 넘어가면 안 된다. 승용차나 옷차림도 북측 근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철 과장, 『위의 책』, p. 91.

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2. 근무 초기

1) 남북 근로문화의 이질성 인식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에 따라 남한의 자본주의 경영방식과 북한의 변형된 사회주의 노동관이 결합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이중적인 구조는 이원적인 운영형태를 갖는다.

하루 우리 작업반에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다 작업을 안 한다. ‘무슨 일이냐? 도 대체 왜 일을 안 하나?’ 내가 물어 보았다. 그 직장장 선생이 온다고 조금만 기 달려 달라고 했다. 나중에 왔는데 편지봉투를 하나를 들고 왔다. 편지봉투를. 편지 봉투 안에 불펜이 하나 들어있었다. 근데 이 불펜에 공교롭게도 무슨 뭐 설계사 김정은 전화번호 000 이런 게 적혀 있었다. 그 불펜 들고 와서 ‘우리 존엄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작업 못한다.’ 이렇게 해서 파업이 된 거다. 이 남쪽에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불펜을 받았을 때 ‘000보험 담당자 김정은 0000 전화번호.’ ‘아니 이게 뭘 존엄이랑 뭘 상관이 있는가? 이름이 우리 존엄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²⁹⁾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대 부자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1호’로 지정하여 각별한 보호를 받는다. 심지어 겨울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1호사진’이 걸려있는 액자보호를 위해 텅 빈 사무실에 히터를 틀기도 한다.³⁰⁾ 개성공단 근무 초기 남한 근로자들은 생경한 북한의 문화를 접하면서 상호존중 보다는 체제우월성에 입각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한번은 우리 회사에서 물건이 왔는데 중앙일보인 모양인데 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 동상인데 거기 기름때가 묻은 거다. 그러니깐 포장을 했던 건데 이걸 최악 짓을 한다고 네 출입국 사무소에 불러 갔는데 벌금을 물린데 애네들이. 사죄문도 쓰고. 법인장이 우리 사죄문을 쓰면서 있다. 거기. 애네들의 법에 맞지 않는 거는 사죄문을 써서 올려야지 뭐 벌금까지 내면서 되다 보니깐. 그러니깐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파견된 북측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혈안이 되 있었던 게 분명히 있다.³¹⁾

명절 같은 때도 명절이 아니라 북측명절, 태양절이나 광명 절이 아니더라도 신정도 그렇고 그 사진이 있는 자리에는 불을 켜다. 명절 내내. 심지어 그게 관리가 잘 되었는지 하루에도 한 두 번씩 꼬박꼬박 온다. 우리도 휴일이고 북측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29) 2017년 7월 12일 녹취

30) “황당했던 사건이라는 건 우리도 흔히 알다시피 그런 것이다. 김정일의 초상화? ... 추우니깐 여기 저기 많이 트는데 그 전기세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사진이 있는 2층의 경우에는 겨울에는 보통 사람이 안 다니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필터를 켤 필요가 없다. 근데 정말 나이 어린 20대 초반 여자직원이 북측 직원이 온풍기를 그냥 틀어놓았다. 그래서 물어 보았다. ‘왜 틀었는가? 전기세 아끼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런데 나중에 조장개념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어째든 이유는 그거다. 사진이 있는 그 공간에 춥다는 거다. 단지 액자 있는데가 춥기 때문에 틀어 놓는게 맞다. 그런 이야길 들으면 당혹스럽다.” 2016년 8월 19일 녹취

31) 2017년 7월 12일 녹취

나와서 그 사진이 잘 있는지 보고 간다. 그런걸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당혹스럽다. 같이 생활하고 인제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정도가 있다.³²⁾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북한 근로자와의 상호접촉이 적은 근무 초기에 주로 발생한다. 다른 문화권과 달리 북한에 대한 문화는 위의 구술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북한의 문화와 비교하여 남한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높게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

2) 이질적 남북 상호근로문화로 인한 갈등

남북 근로자들은 상호 이해부족과 경계심은 종종 근무 초기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종종 발생한 경향을 보인다.

우리가 오늘은 배차. ‘개성 시내 나가는 배차 담당입니다. 40명이 나가야 하는데 조 반장님.’ 사실 40명이 현장에서 빠져 나가면 마비되는 정도다. 아니 아닌 거 같은데 근무시간인데, 두 시간만 하고 나가겠다는 거. 근무시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때까지로 해서 근태 한결 로 찍자. 아 그건 상관없다.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다. 근데 그것도 당일 날. 오후 시간 되어서.³³⁾

대표의 선발권은 직장장 에게 있어 그의 권한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우리에게 통보해주는 식이다. 마치 현장에 사장님이 한명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거의 법인장과 맞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만약 직장장과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노동생산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즉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내지는 무대 응으로 이어진다는 것)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다.³⁴⁾

북한에서는 정해진 업무 외에도 국가동원으로 집단노동을 인민들에게 부여한다. 반면 남한에서는 정해진 계약된 시간 외 따로 근무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거의 외부노동을 겸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에선 인사결정권이 기업소의 지배인에 있지 않고 공장장위원회를 통해 경영주체와 당 주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근로문화에 익숙하지만 경영과 노동관리 주체가 동일한 남한의 기업문화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상이한 남북 근무환경에서 유발된 갈등은 점차 북한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계한다가 보다는 문화가 다르니깐. 외국인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있지 않는가? 인사 할 때 웃으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여긴 처음 웃으면서 인사하면 왜 웃냐고 묻는다. 정이 안 들더라.³⁵⁾

32) 2016년 8월 19일 녹취

33) 2017년 7월 12일 녹취

34) D 사례(소속/분야: 입주기업(점유 분야), 체류기관: 2008~현재, 면접일: 2014), 정은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北韓研究學會報』, Vol.2015, No. 17, 2014, p. 136~137.

35) 2016년 8월 10일 녹취

사회주의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일’이라는 책임감이 적은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구석은 또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믿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북측 간부 근로자에게 저를 모함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자기 입장이 위태로워서 그랬다더군요. 그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르나 봐요.³⁶⁾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근무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에 대한 인식부재와 사전 교육을 통한 남북 상호 근로자에 대한 경계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질적인 직업문화는 작업장에서 갈등유발의 주요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점차 상호이해와 존중이 늘어나지만 늘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³⁷⁾ 이때 남북 근로자의 상호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책임을 오로지 남북 근로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는 상호체제간섭배제를 중시하는 남북경협외의 기본방향도 이러한 환경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근무경과에 따른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식변화

이제 과연 민족에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틀려서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했을 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쉽게 또 대화가 일단 되기 때문에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거다. 우리가 베트남 공장이 있지만 베트남에 가서 사실은 대화는 안 되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런 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참 말이 같은 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인데 인게 왜 통일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³⁸⁾

‘같은 민족’이란 인식은 초기 갈등을 점차 해소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체로 초기 근무 과정에서 남한 근로자가 북한 근로자와의 갈등해소 과정에서 가정 먼저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³⁹⁾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에서 법인장과 작업반장 사이의 일정한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거기는 인맥 명령에 의해서 OO 전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을 바꾸는 게 직장장의 그게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숙련공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인원들이 회사에 부를 갖다 줄 수 있겠끔 되는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기업문화는 상당히 좋

36) 이성령 과장, 『앞의 책』, p. 165.

37) “남측 주재원이 북측 근로자에게 무심코 ‘아~ 이 동강아지야!’라고 불렀다가 그쪽에서 심한 욕으로 받아들여 추방을 당한 거죠. 말뜻에 대한 상호 간의 오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초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박성철 과장, 『위의 책』, p. 94.

38) 2017년 7월 12일 녹취

39) 물론 신원과 같이 오래전부터 북측 근로문화를 준비한 업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갈등사례 빈도가 매우 적은편이다. 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은 드문 편이다. 우선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생산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이 영세하며 다음으로 매우 저렴한 임금만을 생각하고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족적 동질성은 오히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다. 좋고. 우리도 가끔은 직장장이나 우리가 임무지시도 결국 직장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깐 그 친구가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될 해주느냐, 그 친구는 나름대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근로자들을 위해서 될 좀 얻어낼 것을 얻어야 될 상황도 있고, 그걸 많이 또 잘 얻어주는 직장이 나름대로 존대 받는 그런 직장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 미묘하게 다 이루어지는 게 회사 각 각 회사들의 문화가 발생하는 거다.⁴⁰⁾

남측 법인장이 북측 직장장의 생일을 미리 알아서 챙겨 준다. 생일이 언제인 걸로 아는데 무얼 좀 해 주고 싶다고 물어본다. 그러면 직장장이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쭈뼛쭈뼛 하다가도 어떤 게 좋겠다고 대답한다. 다음에는 아내 분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챙겨 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진다. 북측 직장장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배려해 주는 태도가 고마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산성 향상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하는 행태로 반응이 온다. 또한 법인장이 주중 근무를 마치고 주말에 서울로 쉬러 나갈 때 직장장 사무실에 가서 다른 북측 직원들 있는 앞에서 “직장장만 믿고 주말 잘 갔다 오겠다”고 한마디 한다. 그런 말 한마디가 이전에 해 주었던 것들과 결합되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다.⁴¹⁾

이러한 갈등해소 과정에서 남한 근로자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점차 차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 할만 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는 같은 작업장에서의 동료로서 인식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근로자 주체가 어떻게 상호협력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운영의 명암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⁴²⁾

3. 남북 근로자간 관계 형성 이후

1) 남북 상호 근로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간 상호접촉이 빈번함에 따라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엔 낯선 북한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공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북한 근로자들 역시 남한의 성과중심의 직업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산성향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다. 그런 일이 있다. 뭐 우리가 오늘은 배차. ‘개성 시내 나가는 배차 담당입니다.

40) 2017년 7월 12일 녹취

41) 지원기관 H씨(중간관리자) 증언, 이우영, 구갑우, 양문수, 윤철기, 이수정,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p. 90.

42) “초창기에는 사실 서로의 탐색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서로의 가정사 이상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근로자와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고, 사무관리 쪽 근로자나 각 조의 조장들, 그리고 직장 장들과는 터울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정도가 되면 애인과 데이트했던 이야기, 가족의 경조사 등을 공유하게 된다. 구글 위성사진으로 자기네들 집의 크기나 위치를 보여준다거나... 이념적, 정치적인 이야기만 아니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중략) 이렇게 친해지기까지 몇 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E 사례 (소속/분야: 입주기업(섬유분야), 체류기관: 2005~현재, 면접일: 2014), 『앞의 책』, p. 132~133.

40명이 나가야 하는데 조 반장님.’ 사실 40명이 현장에서 빠져 나가면 마비되는 정도다. ... 미리 와서 아침에 와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애에도 말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다. 안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협조를 구하고. 또 뭐 그렇게 까지 하는데 내가 그거 못 들어 줄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먼저 쓰면 된다. 현장을 좀 나눠서 차출을 뽑아서 한다면 은. 뭐 그렇게 하자. 애네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깐. 그게 굳이 게가 계네들을 보내서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되는데, 기업이 많이 발전하는 거다.⁴³⁾

거기는 아무래도 인제 규모가 개성에서 채워 놓으니깐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게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다. 이전에는 사실 개성 초만 해도 우리도 30~40명씩 결근하고, 뭐 출퇴근 카드 따로 찍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업체들 자꾸 변하는 거다. 거기에 맞게. 인원체크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깐 근무 해야지 돈을 가져 갈 수 있다는 게 인제 바뀌어 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통제해야 경비실에서 나가는 인원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경비도 물론 계네들이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인원이 빠져 있으면 왜 빠졌는지 파악해서 결근인지 파악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니깐 그런 거는 점점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⁴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남북 근로자들은 점차 서로의 생활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의 경직된 관계는 친교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 정도를 편하게 주고받는다. 상호간의 개별적인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초기에 갖았던 남북 상호간의 일방적인 인식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재원들 중에는 공단에 있는 식당의 복측 봉사원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 생일에 케이크를 갖고 와서 봉사원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생일파티를 해줬다더군요. 워낙 인기 있던 사람이지만, 남북이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서로 배려하게 되는구나 싶더군요.⁴⁵⁾

내가 우리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뭘 먹을 것을 줘도 안 받으시고 그러신다. 절대 안 받으시고 필요 없다 일없다. 하고 그냥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드리고 “괜찮다 그냥 드세요” 라고 이야길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게 자연스럽게 같이 먹는다. 그리고 정말 웃긴게 처음에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한다. 물론 주는 입장에서도 별로 그런걸 바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리고 싶으니깐 드리는 거다. 받을 때도 그냥 받고. 근데 꼭 원래 사회가 원래 그러니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깐 고맙다고 이야길 하신다.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러다 보니깐 많이 바뀌었다.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그 정도 그렇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무시 못 하는 것 같다. 많이 긍정적인 면을 봤겠다. 두려움 같은게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줬었고.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친해졌

43) 2017년 7월 12일 녹취

44) 2017년 7월 12일 녹취

45) 박성철 과장, 『앞의 책』, p. 100.

다.46)

남북 근로자들은 공장운영에 있어 상호간의 상이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접합 점을 찾아 협력관계를 높여가기도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공장생산성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갈등요소를 줄여나가면서 상호간의 신뢰는 높아진다. 이러한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작업장에는 아예 법인장이 상주하지 않고 운영전반을 작업반장에게 맡기는 사례도 발생한다.47)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에 상실이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이 만나 높은 생산성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평가 이면에는 남북 근로자간의 갈등과 해소의 과정이 숨겨져 있다.48)

2) 남북 근로자간의 새로운 관계형성

남북 근로자는 작업장이란 제한된 공간에서만 근무 시간 안에서 접촉한다. 그 외 시간은 철저히 서로의 일상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남북 근로자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는 여러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남북 근로자는 북한 근로자에 대해서 점차 ‘직장동료’로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념일이 되면 공연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 공연단이 구성되어 있다. 악기부터 지네들이 다 준비를 해 와가지고. 그럼 애네 들은 밖에서 경연대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무 시간부터 한 시간씩 빼주십시오. 뭐 해갔고, 식당에 가서 악기 연습도 하고 오케스트라 같은 연습들도 하고, 그런 것도 뭐 생활총화 맞춰준다 하면 배려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회사가 평온하게 잘 가는... 또 한 번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비둘기를 한번 키워 보겠다고 해서 비둘기집을 만들 자재만 사줬다. 집도 만들어갔고 비둘기가 데리고 오더니 비둘기는 어려서 밥을 주면 안 떠난다고 한다. 거길 계속 찾는다. 밤에 다 되어서야 공단 놀러다니다가 밤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고, 비둘기가 7마리가 그렇게 다니고, 그게 서로 좋아지면 은 한 없이 좋아질 수 있는데...49)

상호에 대한 이해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맞물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 간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북한 근로자의 근태문제에 관해서 개성공단에서 나타난 북한 체제의 원론적인 노동자 관리 형태는 대표적인 남북 상호의 이해에 따른 산물이다.

46) 2016년 8월 10일 녹취

47) “그들의 손재주는 상상을 초월해요. 집중력이 좋다고 할까요? 6개월 만에 남측 숙련공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더군요. 그들에게 참고 열쇠를 주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남측 법인장이 한 달에 한 번 개성에 와서 중요한 사안만 결정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생산을 그들이 알아서 하니깐 오히려 더 잘 돌아갑니다.” 박성철 과장, 『앞의 책』, p. 93.

48)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인식 이면에는 북한 근로자를 단순히 돈벌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인식이 숨겨져 있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근로자와 관리기관인 총국을 자극시켜 높은 임금 인상과 토지 이용료의 증가 요청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남북의 부정적인 요소가 새로운 갈등의 발단이 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남으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49) 2017년 7월 12일 녹취

그렇다. 남측이 그렇지 않은가? 여기 출근 안하면 돈 안주지 않는가? 그거로 논리로 거기도 적용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전엔 없었던 결근자도 출퇴근부에 체크가 되고 이전에는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겠나? 대타 출석을 하고 뭐 그런 관리가 되니깐 줄어드는 거다. 전체적으로. ... 름대로 이야기는 뭐 퇴근하고 개성 나가서 결근했던 사람들 집을 방문했다고 하고, 지네가. 그건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개성에서 내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거의 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깐 개성 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올 수 있는데 위성도시. 개성의 위성도시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렇게 일어나야 버스를 타고 다 비포장도로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깐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었다.⁵⁰⁾

대체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근로시스템은 사실상 붕괴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암암리에 지배인과 작업반장, 노동자 사이의 일탈과 결탁이 발생했다. 각 기업소 노동자들은 일정부분 뇌물을 주고 출근기록부에 적을 걸어둔 형태로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사실상 눈감아주었다.⁵¹⁾ 이러한 경향은 개성공단 초기 모든 작업장에서 근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⁵²⁾ 남한 법인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작업반장과 상위 관할기관인 총국에 근태관리에 대한 적극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의 작업반 운영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통계를 강화하고 근태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북한체제에 자본주의를 새롭게 심어주는 관문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재고 할 수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

4장 독립적인 상호협력의 주체로의 재인식

1. 분단환경에서 분리된 독립주체

1) 실체적인 접촉대상으로의 북한 재인식

개성공단 근무 이전 남한 근로자는 실체적으로 북한을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 개성공단 근무자 중 남한 법인장들은 대체로 이전에 유사한 공단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노동 유연성이 고착화된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에서 이들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여력이 없다. 이들에게 개성공단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제공된 ‘일터’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남한의 근로문화에 익숙했고, 북한에 대한 이해는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단편적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친 경력자들은 북한에 대해 반공적인 선입견을 갖고

50) 2017년 7월 12일 녹취

51) “정상가동 기업소 노동자 경우에도 생존을 하려면 공장 노동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통제와 출근 대신 내는 현금을 내지 않고 자기 개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대표적 현상이 병원 ‘요양 진단서’ 제출, ‘8.3노동자’로 등록, 직장 ‘격차 노동(격차 로력)’ 등이다.” 조경아, 서재진, 임순희, 김보근, 박영자, 『앞의 책』, p. 128.

52) 물론 신원과 같이 미리 북한 근로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업은 초기 갈등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있으며 민주화 이후라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김정은의 삼대세습’ 등의 특정한 단편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더욱이 북한사람은 우리와 함께 언젠가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체제에 살고 있는 ‘별종’으로만 인식되었다.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북한을 실제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북민도 북한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이 일부 대중 매체를 통한 이른바 ‘북한실상’에 관련한 정보로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더욱 고착시켰다.⁵³⁾ 2000년대 남북교류는 활발히 일어났지만 2008년 금강산폐쇄, 2016년 개성공단폐쇄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전히 북한은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당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개성공단은 추상적인 북한의 모습을 보다 실제적으로 접했던 지역이었다. 개성공단에 근무를 시작한 남한근로자들은 비로서 실제 북한 근로자와 그들의 직업문화를 경험했다. 물론 남한 법인장이 가장 빈번하게 접근하는 대상은 작업반장이었다. 그러나 한번 작업반장과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이채로운 북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은 점차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새롭게 재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피상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도 점차 실질적으로 상호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환된다.

2) 이질적인 이중구조 속 상호협력의 주체: 남북근로자

개성공단은 남한의 경영과 북한의 노동이 결합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두 근로환경의 통합이 아닌 기능적인 결합이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근로자는 초기 상호간에 이질적인 특성을 대체로 더 크게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상호 근로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으며 반면 상호 간의 비교에서 자신의 근로문화를 우월적으로 인식한다. 즉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 근로자의 통합을 이끌어 내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원칙인 ‘체제간섭 배제’가 통합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당국은 남북경협의 원칙을 들어 작업장에서의 다양한 갈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방임된 남북근로자는 분단환경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상호통합을 모색한다. 남한의 법인장은 공장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북한의 노동자는 보다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유지를 위해 양자 간엔 적절한 타협을 이룬다. 남한 법인장들은 북한의 예외적인 현상을 인정하고 동시에 원활한 경영에 필요한 근태관리와 노동력 재배치를 요구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작업반장을 통해서 노동 외 체제동원의 차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경영의 원활한 근태관리와 노동력 재배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다. 이러한 원활한 협력관계는 법인장과 작업반장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협력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분단환경에서 상호를 바라보았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다. 독립적으로 남북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작업장에서 상호접촉을 통해 서로를 재인식한다. 그리고 분단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의 모델을 스스로 각성시킨다. 이러한 경험은 점차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일정한 이해와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생의 길을 열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로 이어진다.⁵⁴⁾ 개성공단

53)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종편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란 이전 KBS의 ‘미·수·다’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하여 미녀 탈북민을 메인 패널로 북한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사연을 듣는 방송이다. 그러나 대부분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실제 북한의 상황과 다른 위작의 논란이 많다.

54) “그런데 이제 과연 민족에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틀려서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했을 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쉽게 또 대화가 일단 되기 때문에 말이

에서의 남북경협은 상생은 남북 근로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갈등과 통합이 이루어져 왔다.

2. 남북경협을 견인자로서 남북근로자의 역할재고

1) 남북경협을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로의 재인식

개성공단을 비롯한 그 동안의 남북경협은 변수는 늘 경협을 외부변수에 집중되어 있었다.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은 성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국제관계의 안정과 발전이 필수로 여겨졌다.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정세안정의 하나의 모델로서 초점을 맞추었다. 개성공단의 운영은 10년 이상 이어졌으나 그 자체 역량은 항상 외부변수에 의해 평가절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사실 개성공단의 운영은 민족경제공동체란 맥락에서 추진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기초가 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전체적으로 ‘민족’으로서의 특수한 관계로 남북관계를 설정했다. 개성공단은 바로 향후 통일 이후에 논의될 민족통일경제모델의 가시적 성과였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일종의 ‘민족통일경제공동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물이자 이정표였다. 따라서 개성공단 내부의 여러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같은 민족’이란 맥락에서 남북경협을 공간만 마련되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낙관적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실제 주체는 바로 남북 근로자이다. 이들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분단환경에서 비롯된 남북근로환경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통합을 스스로 일구어내었다.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요소와 위기를 감수하고 근무했던 남북 근로주체가 아니었다면 개성공단은 얼마 못가 더 내부적인 요인으로 폐쇄 될 수도 있었다. 개성공단을 통일 이후의 민족통일경제공동체로 그 중요성을 인식한 그 원동력 역시, 남북 근로자의 상호접촉에서의 갈등과 통합경험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

2) 자율적인 독립주체로서 남북 근로자의 존재재고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상징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유지되었다. 남북경협을 원칙에 따라 남북 당국은 상호체제개입을 배제했다. 따라서 남북당국은 사실상 각 작업장의 남북 근로자의 상호접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분단환경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남북 상호를 재인식하고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델의 주체로 남북근로자를 성장시킨 주요요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서로의 상이한 근로문화로 인한 갈등에 대해선 사실상 방임하였다.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운영구조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주체이며 통합의 원동력은 남북 근로자에 의해 견인되었지만 정작 운영의 결정권은 여전히 남북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폐단이 바로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폐쇄조치다. 이때 남한 근로자들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제대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비참한 상태로 놓여야 했다. 동시에 여론으로 부터도 일부 따가운 비판시선을 견뎌야 했다. 결국 개성공단의 운영에서 폐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늘 남북 근로자들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향후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남북 근로자를 운영주체에서 배제시킨다면 당장 남한의 어느 업체도 진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진정한 정신을 남북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거다. ... 남과 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본다.” 2017년 7월 12일 녹취

당국이 계승하고자 한다면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남북근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의 작업장에선 매번 상호갈등이 있어왔지만 결국 서로의 이해와 성숙된 자세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내었다. 향후 개성공단에서 진정한 운영주도권을 남북 근로자가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5장 나가며

개성공단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취지에 따라 남북경협을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에 따라 상호체제의 인정과 간섭배제의 원칙에서 공단운영은 이원화되었다. 남한은 각 작업장의 경영을 북한은 해당 작업장에 노동력을 제공,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의 운영취지는 남북 근로자의 다양한 접촉성을 증가시켰다. 초기의 여러 갈등요소에도 불구하고 남북 근로자의 접촉은 서로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남북 상호 근로문화를 이해하면서 이질적인 차이에선 적절한 접점을 찾아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가 점차 강화되어갔다.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근로자의 접촉 경험은 분단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그 구상 단계에서부터 남북 간의 위계를 조장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간의 남북의 경제 및 사회전반의 격차는 간과했다. 남북의 경제와 문화 등에서의 격차는 남북 간의 암묵적인 위계를 자리 잡게 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측면에서 추진했던 개성공단은 이미 남북체제의 위계를 암묵적으로 내포한다. 특히 이미 단편적인 남북의 상호이해를 가졌던 남북 근로자들은 사전교육에서 오히려 분단환경에서 파생된 경계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갈등해소와 통합의 길은 개성공단의 구조도, 제도도 아닌 순전히 직접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남북 근로자의 몫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동시에 북한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경협은 상호변화 보다는 남한에 의한 일방적인 북한의 체제변화란 인식이 이면에 전제되어 있다. 남한 법인장들도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북한 근로자에게 여러 혜택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영 문화는 철저한 근태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노동관리 보다 자신들이 이전에 운영하던 사회주의적 통제운영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글에서 검토한 사례는 개성공단의 경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도적 수준에서 개성공단을 구상하나 단계에서 전제되어 있는 시선은 상호체제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기 보단 이질적인 요소를 기능적으로만 결합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체제경쟁의 단초를 제공한다.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갈등해소와 통합은 작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온전히 겪는 남북 근로자의 몫이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개성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자치기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향후 개성공단의 재개가 이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기존형태로 운영되는 한, 사람간의 통합의 성과는 구조적, 제도적인 변화로 반영될 수 없다. 오히려 근태관리의 사례에서 보듯 남북 근로자의 상호이해와 통합이 오히려 남북의 이질성을 더욱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수돌, 『노사관계와 삶의 질』 (서울: 한울, 2002)
-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외,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 (과천: 진인진, 2015)
- 김진향 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 사람들』 (전북: 내일을 여는 책, 2015)
-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 (과주: 한울, 2007)
- 이우영, 구갑우, 양문수, 윤철기, 이수정,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 임을출,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 (서울: 해남, 2005)
- 조경아, 서재진, 임순희, 김보근, 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영래, 『전태일 평전』 (서울: 사단법인 전태일기념사업회, 2008)
- 최종태,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 학술지

- 민족21 편집 부, 『민족 21』, Vol. 46, 민족21, 2005
- 이동훈, 「[특별기획: 불 꺼진 개성공단, 과장과 전망은] 인터뷰: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만 북한 주민 생계수단 사라져 충격 클 것」, 『통일한국』, Vol. 387, 2016
- 장기석,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행정법위반 형사사건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統一과 法律』, No. 1, 2010
- 장용훈, 「특별기획: 긴급진단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제로시대」, 『통일한국』, Vol. 387, 2016
- 정은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北韓研究學會報』, Vol.2015, No. 17, 2014
- 양문수, 「제1회의 :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 북한의 "6.28 방침"과 경제개혁」,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Vol. 2012, 2012

3) 학위논문

-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신정현, 『노태우·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 기타

- 면담자 S, G위원회 근무, 2016년 8월 10일 녹취
- 면담자 S, H사 파견근무, 2016년 8월 19일 녹취
- 면담자 H, M사 법인장, 2017년 7월 12일 녹취
- 『위키백과』

「상호접촉에 의한 남한 근로자의 시선 변화: 개성공단 사례」에 대한 토론문

박솔지(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원)

임지훈 선생님의 글(이하 필자) 「상호접촉에 의한 남한근로자의 시선변화: 개성공단 사례」는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대표사례인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 통일과 분단극복의 과정에서 남북 주민 간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접촉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나아가 개성공단 사례가 갖는 한계점과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계기로서 개성공단 사례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통한 분단적대성의 완화와 통일 이후의 남북의 생활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 사업과는 달리 1)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점과 2) 특정 공간에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남북주민 간 상호접촉이 진행된 점에서 분단체제가 낳은 분단적대성을 완화하는 남북교류의 사례 중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과제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분단적대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하 수고하신 발표자의 글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및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필자의 글에서 제시되는 용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특정 용어의 선택은 필자가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북의 두 문화를 보는 관점과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로’와 ‘노동’ 혹은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제시되고 있는 점, 2) 구술면담자의 경우도 ‘북측-남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북한-남한’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점 3)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이질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점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술자료가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면담자에 대한 정보가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법인 장’ 이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담자가 실제로 개성공단에 근무한 시기와 기간, 업무상의 특징 등이 궁금합니다.

셋째, 개성공단 사례에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 간의 차이는 ‘근로문화’입니다.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접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문화’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기된 문화적 차이가 ‘근로문화’라고 하는 한정된 분류에 포괄할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장 2절의 2) 이하 부분에서는 필자가 한정된 ‘근로문화’에 적합한 분석 사례와 근거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앞의 부분까지 제시된 내용은 ‘근로문화’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개성공단은 필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남북경협의 산물으로써, 남과 북이 가진 가장 다른 체제적 특징이 결합되는 사례입니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남과 사회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북이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를 맺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남북 간의 갈등 양상은 단순히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인식(필자는 발표문에서 교육기관 및 언론을 통해 쌓인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북에 대한 체제우월의식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임노동의 관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계성이,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의 위계의 식과 맞물리면서 갈등 양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자가 발표문에서 ‘이중구조’로 표현하고 있는 그 특징이 개성공단의 사례가 다른 남북교류 사업과 다른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면담 사례를 넘어, 상호 시스템이 갖는 차이에 대한 분석이 보장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남북근로자’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들이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권한이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 극복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토론자의 문제의식과 많은 지점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 쏟아주신 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본 발표문의 보완을 통해 해당 연구의 좋은 성과로 남기를 바랍니다.